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창조와 도전으로 반짝이는  
'발명특허'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생각의 불편이 현실을 뛰어 넘어  
창조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곧 개인과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발명'은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도전'입니다.

# 발명특허

## INVENTION & PATENT

세상을 밝히는  
발명과 특허 이야기

[www.kipa.org](http://www.kipa.org)

### SPECIAL CREATIVE THINKING

**INSIGHT** /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발명'

**KIPA ACTIVITY** / 미래 변화의 힘, 발명영재교육에서 찾다

**INTERVIEW** / 조벽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01  
02

VOL.438  
2013  
JANUARY  
FEBRUARY





## CREATIVE THINKING

창의적 사고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을 개선하는 독창적 사고죠. 하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생각을 흔들고 깨서 변형시키거나, 자기 나름의 고유한 시각을 여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는 길러질 수 있습니다.

시인 '마야 앵겔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창의성을 고갈시킬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이용하면 할수록 더욱 많아질 것이다.  
다만 슬픈 일은 창의성이 키워지기보다  
질식되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고방식과 인식,  
의문이 장려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세상을 밝히는 발명과 특허 이야기

# 발명특허

2013  
JANUARY  
FEBRUARY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발행일 | 2013년 2월 5일

발행처 |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발행인 | 김광림 편집·기획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팀 박선민(02,3459,2727) www.kipa.org

편집디자인·제작 |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co.kr



## contents

개편사		<a href="#">04</a>
<b>SPECIAL</b>	<b>CREATIVE THINKING</b>	
INSIGHT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발명'	<a href="#">06</a>
KIPA ACTIVITY	미래 변화의 힘, 발명영재교육에서 찾다	<a href="#">10</a>
INTERVIEW	스스로 문제 만들 줄 알아야죠 - 조벽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a href="#">14</a>
IP FOCUS	① 행운의 발명, 오카시오의 축복!	<a href="#">18</a>
	② 유럽시장 브랜드 진출의 첫걸음, 식별력 있는 상품인가	<a href="#">22</a>
	③ 산업현장의 혁신을 주도할 미래 지식근로자	<a href="#">26</a>
	④ 글로벌 동향	<a href="#">30</a>
발명가 사람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준비하다	<a href="#">34</a>
함께 그리는 세상	① 아이디어가 샘솟는 창의 활동 프로젝트 '어깨동무'	<a href="#">38</a>
	②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 눈이 온다!	<a href="#">40</a>
지식 더하기, 기술 나누기	불황을 딛고 기술력으로 승부하다 - (주)오리온테크놀로지	<a href="#">42</a>
트렌드 리포트	힐링(healing)의 시대, 마음의 메시지를 읽다	<a href="#">46</a>
생활 속 발명이야기	발명은 곧 발견, 이정미 제이엠그린 대표	<a href="#">48</a>
IDEA 공작소	상상, 우물 속 그늘로부터 우주 너머의 향기	<a href="#">50</a>
IP NEWS		<a href="#">54</a>
KIPA NEWS		<a href="#">58</a>
특허 Q&A		<a href="#">62</a>

공감과  
소통을  
통한

‘창의’  
꽃  
피우기

PRESIDENT MESSAGE



##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를 공감과 소통의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발명진흥회장 김광림입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혹독한 한파가 제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은 찾아옵니다.

얼어있던 땅이 녹고, 산과 들에는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한국발명진흥회도 새로운 한해를 맞아,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를

공감과 소통의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창의’의 꽃을 피울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은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의 훌륭한 견인차이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발명특허]는 연구계나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보다 잘 인식하고

활발하게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대중화’ 시대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의 창의적 사고와 발명의 가치 증진으로

국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는 그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기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조은영 부회장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방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감사원 부감사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장, 감사담당관, 인사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을 역임했다. 올 한해도 역시 소통하는 리더, 듣는 리더를 꿈꾸는 그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모든 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발명'



- Q.**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해 간단한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부회장님께서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 A.** 반갑습니다. 독자여러분! 한국발명진흥회 조은영 부회장입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한국발명진흥회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회는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지식재산산업을 보호·육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해 설립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1973년 설립 이후 지난 40년간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으로서 특허산업의 새 장을 개척해왔습니다. 발명가나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거래 활성화 지원, 지식재산 전문인재 양성,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을 통한 전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한국발명진흥회가 협회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 인가요?
- A.** 유형자산만을 중시하던 기업경영이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서변화에 발맞춰 저희회는 기업들이 원하는 사회 전체적인 지식재산의 수요분석 및 예측을 통해서 그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해냈던 책임감과 끈기를 갖춘 모든 직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Q.** 한국발명진흥회는 국민들의 창의적 사고와 발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세워진 공공기관입니다. 평소 부회장님은 창의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A.** 주로 여행을 가거나 책을 많이 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단순히 경치만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낯선 장소에 얽힌 이야기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보고 듣습니다. 또 문학, 역사, 철학 등을 담은 인문학 책들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얻은 영감을 전부 메모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사고도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무수한 발명품들도 '기록'이라는 활동이 없었으면 탄생하기 힘들었겠죠.

**Q.**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우수 발명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을 설립했다고 들었습니다. 우수한 창의적인 영재의 보유 수준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나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학교 교육현장에서 발명영재학급 수, 발명교실 수, 발명대회 등 발명영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함과 더불어 발명교육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교사교육에 대한 학계 및 교원의 요구 증대에 따라 발명영재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가지정 발명영재교육 연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의 비전은 한국의 빌게이츠나 래리페이지 같이 미래를 주도하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며, 발명영재교육의 이론·학술적 토대 구축과 문화조성, 청소년과 교원대상 발명·지식재산 교육 지원, 지식재산 기반 인재양성을 위한 성장지원 등 발명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한 성과를  
내길 원한다면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Q.** 이밖에도 한국발명진흥회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기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국발명진흥회는 직원의 역량 및 창의적 사고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이나 해외단기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 직원 대상으로 연 2회 명사초청 특강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12월에는 사업마무리로 쌓인 업무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마인드바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머리를 상쾌하고 말랑말랑하게 함으로써 창의적 마인드와 업무능률을 끌어올리는데 목적이 있었죠. 이론 중심의 강의가 아닌 체험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이라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직원 개인의 안정과 행복에서 피어난 훌륭한 조직문화가 기관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특허기술거래 및 평가사업, 지식재산 교육사업입니다. 특허기술 거래의 선도기관으로서 연계사업을 통해 개인은 물론 정부연구소와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연간 150건 이상 기업으로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성을 가진 특허기술 자동평가시스템을 구축, 특허번호 입력만으로 기술의 시장성·권리성 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발명·특허의 기술거래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공모델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해 일반 대중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를 촉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식재산의 국내 최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것입니다. 일반 대중의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시공간적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라닝(온라인) 교육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취업과 창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Q.** 부회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부회장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멘토, 또는 신념이 궁금합니다.

**A.** 저는 평소 공자께서 하신 말씀으로 논어(옹야편)에 나오는 “知之者 如好之者, 好之者 如之者 (그것을 알기만 하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한 성과를 내길 원한다면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려면 당장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하고, 마음이 움직여야만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당신의 기질을 꽃피우는 일에 매진하세요. 당신이 몰입할 수 있는 영역을 조용히 따라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차별화시킨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Q.** 앞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가요?

**A.** 연구계나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보다 잘 인식하고 활발하게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대중화' 시대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기관만이 지원 가능한 특허된 특허평가 및 지재권 교육업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우리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을 통해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체계적 경영시스템으로 내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세계적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운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명특허





# 미래 변화의 힘, 발명영재교육에서 찾다

##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출범식



그동안 차세대영재기업인과 발명영재의 정서적, 정의적 지원을 위해 동분서주한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가 국가지정 발명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난해 12월 14일 새롭게 출범했다. 앞으로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은 발명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창의적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명교육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정서적 지원 등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그 뜨거웠던 출범식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01.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출범식에서는 학술세미나와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자문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02. 발명영재교육 관계자, 학회 관계자, 차세대영재기업인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발명영재교육 관계자, 학회 관계자, 차세대영재기업인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출범식은 발명영재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함께 축하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이날 한국발명진흥회는 연구원 설립 기념 학술세미나와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뒤 현판식 행사로 축하 분위기를 이어갔다.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원 설립 기념 학술세미나는 '미래 변화의 힘, 발명영재교육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호원 특허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학계뿐 아니라 기업 관계자의 조언도 필요하다"며 "이론과 현실을 잘 접목해 발명영재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축하했다. 한국발명진흥회 조은영 부회장은 "아이들에게 미래가 달려 있다"며 "수학이 뿌리, 과학이 줄기라면 열매는 바로 특허"라고 설명한 뒤 "발명교육을 잘 시키는 게 국가 미래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기문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전문위원이 '발명영재교육연구원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박 전문위원은 "발명교실, 발명영재



03

03. (왼쪽부터 백다예 학생, 김은정 학부모, 장진구 학생) 2012년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자문회의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04. POSTECH 차세대영재기업인 1기 수료생인 이동기 학생(현 UNIST 기초과정부 재학)이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출범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발명영재교육을 통한 학생변화사례> 발표자로서 '인생의 전환점, 발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05. 발명영재교육원은 발명영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으로 발명영재분야 연구원으로는 세계 처음이다.

학급 수, 발명대회 참가자 수 등 창의발명교육의 수요가 2~8.6배까지 증가했다"며 "발명교육의 학술적 연구, 교사교육 체제에 대한 학계와 교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93%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첨단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서는 우수한 창의적인 영재의 보유 수준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을 통해 과학이나 기술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데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교과 중심의 영재교육에서 벗어나 융합과 통합적 발명영재교육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발명영재교육의 체계적 연구와 수준 높은 발명교사 양성, 차세대영재기업인에 대한 지속적 성장지원과 함께 대학단계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발표자 이재호 경인교대 교수는 '발명영재교육의 정체성 정립'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영재교육에 대한 의미를 짚어본 뒤 발명영재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발명영재상 영역을 '발명가적 지식기술 역량', '발명가적 통합창의 역량', '발명가적 인성 역량'으로 분류하며 미래지향적 발명영재상은 공학적 소양, 인문학적 소양, 과학적 이성, 예술적 감성을 융합적·통섭적으로 사고하는 창의인재라고 정의했다. 이 교수 역시 체계적인 발명영재교육을 강조했다.

연구 발표에 이어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2기생 김필권 군과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1기생 이동기 군이 나와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학술세미나는 마무리됐다.

한국발명진흥회 대회의실에서는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진행됐다. 자문위원회는 이현구 대통령실 과학기술특보, 정태현 POSTECH 부총장, 주대준 KAIST 대외부총장, 이민화 KAIST 교수,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해 재학 및 수료생 기업가정신 역량 강화,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재정운영 강화,



04



새롭게 출범한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영재기업인 및  
발명영재와 같이 발명에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의 향후 운영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자문회의에 참석한 김호원 특허청장은 “2012년 상반기 국내 기업들이 특허 사용료 등으로 외국에 지급한 금액이 5조 원에 근접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히며, “국가 기술무역 수지의 만성 적자 구도를 타파하여 장기적인 국가 성장능력을 회복하는 데는 지식재산을 창출·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새롭게 출범한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영재기업인 및 발명영재와 같이 발명에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정책 지원의지를 밝혔다. 이날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출범식은 현판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발명영재교육 관계자, 학회, 학생과 학부모 등은 “미래 변화의 힘, 발명영재교육에서 찾자”고 다함께 외친 뒤 우레와 같은 박수로 연구원 출범을 축하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미래 변화를 위한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됐다. **발명특허**



05

# 스스로 문제 만들 줄 알아야죠

조벽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유명한 조벽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그가 강의하는 주제는 청소년과 인성교육, 창의교육과 발명 등 매우 다양하고 그 범위도 넓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공통분모는 결국 ‘지금까지 생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사고다. 혹자는 물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병들고 아픈 것은 사회가 제시하는 보기가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좀 더 많은 보기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그에 대해 조벽 교수는 대답했다. “답 없는 문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01

01. 그는 창의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고민과 철나의 영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02. 조벽 교수의 주요 저서로는 「조벽 교수의 인재 혁명」,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 「내 아이를 위한 감성코칭」 등 다수의 저작과 논문이 있다. 03. 조벽 교수는 우리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실천 전략을 전파해 온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다.



02

**세상에 돌도 없는 생각, 세상을 둘러보는 행각**

발명(發明). 언뜻 들으면 매우 어려운 단어다. ‘발명’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어느새 우리 머릿속에는 에디슨의 필라멘트가 생각나고, 여기 저기 언론을 도배하는 ‘발명왕’의 능름한 아저씨가 떠오르곤 한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물건만이 발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는, 어쩌면 이러한 사고(思考)로 인해 발명에 대해 더욱 어렵게 생각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를 만나고 나니, 이게 웬 걸. 발명이란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대상으로 여겨진다.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물건을 넘어, 혹은 세상의 판로를 바꿀 위대한 제품을 넘어 창조적 사고와 관련한 모든 것이 발명으로 여겨진 것이다. 조벽 교수는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곡을 새롭게 편곡해 부르는 것 역시 발명이라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창의력이 서서히 폭발하는 중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새로운 편곡이 아니면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을 수 없다. 잠재돼 있던 것이 폭발하는 것이다.”

학교와 직장 내에서 ‘창의 인재’가 매우 중요시 여겨지면서 ‘창의 교육’과 ‘창의 업무향상’ 등의 용어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것은, 창의(創意)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멋진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상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방향과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창의’는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창의와 발명, 과연 둘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창의력과 발명의 관계는 두 가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은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다. 분명 두 가지는 같은 것은 아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에 대해 창의적이라고는 하지만 발명이라고 말하진 않지 않나. 발명이라는 말은 현대에 와서 쓰임새를 많이 생각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창의력이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발명이 있을 수 있으며, 발명이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창의력이 존재할 수 있다. 단, 두 가지가 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사고방식이 사용되는 것은 매우 유사하다.”

조벽 교수는 발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창의력’을 언급했다. 더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발명 행위를 완성시키는 요소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발명을 염두에 뒀을 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바로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로 불리는 독창성과 적절성이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게 독창성이라면 경제활동을 염두에 두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적절성이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해보자. 독창성이 ‘세상에 돌도 없는 생각’이라면, 적절성은 ‘세상을 둘러보는 행각’인 셈이다. 어떨까. 이 말도 새롭지 않나. 이것도 일종의 발명이다. 적절성과 독창성을 재미있게 독창적으로 정의 내렸으니까. 이 말은 인터뷰를 하는 도중, 머릿속에 문득 떠올랐지만 결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떠오른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내가 창의력에 대해 생각해왔기에

이러한 문구도 갑자기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즉, 창의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고민과 철나의 영감이 모두 중요한 셈이다.”

조벽 교수는 영감과 직감, 통찰력 등에 대해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창의력은 기발한 아이디어인 만큼 특출난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기본에 충실한 태도가 우선한다고 강조하지만 결국 창의력은 둘 중 어느 하나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개념인 것이다.

### 호기심, 발명의 핵심

매년 여름 방학이면 대전의 과학단지에서는 청소년들의 과학 향연이 한껏 열린다. 그 중에는 발명 수업도 꼭 진행되는데, 참여하는 학생 중에는 물 만난 고기처럼 매우 흥미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재료를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은 발명을 어려워하는 것일까. 조벽 교수는 이것이 지금까지 배워온 교육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학교에서 가장 흔하게 연습해 온 사고의 방식은 A, B, C, D가 주어지고 함수방정식에 이를 대입하는 식이었다. 압도적으로 이러한 훈련을 받아온 것이다. 때문에 다른 식의 문제해결은 엄두가 안 나는 게 사실이다. 발명은 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발명에 대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문제 해결 과정에 사용되는 발명이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답이 있는 문제를 내어주고 보기를 주었다. 하지만 여기에 발명의 개념을 접목해 보면 답이 없는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법이나 도구를 찾도록 할 수 있다. 이 역시 많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주어졌으니까. 두 번째 발명이 필요한 문제는 학생으로 하여금 문제 자체를 찾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이 더욱 높은 차원의 발명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진정 문제인지 잘 모르지 않나.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주지 않고 있다. 경험이 없고 연습이 없던 셈이다.”

조벽 교수는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이 발명을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사실 모든 능력은 스스로 상황과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 안에 있지 않나. 조벽 교수는 페이스북을 만든 주크 버그를 예로 들며 “그는 자신이 생각한 상태로 하나씩 질문을 정립해 나갔다. 그 결과 페이스북이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발명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발명교육을 진행하는 교사와 이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필요한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따라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이는 일상에서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허용해 줘야 한다. 거미줄은 왜 끈끈한지, 그런데 그토록 끈적끈적한 거미줄에 왜 정작 거미는 들러붙지 않는지, 이러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린 교육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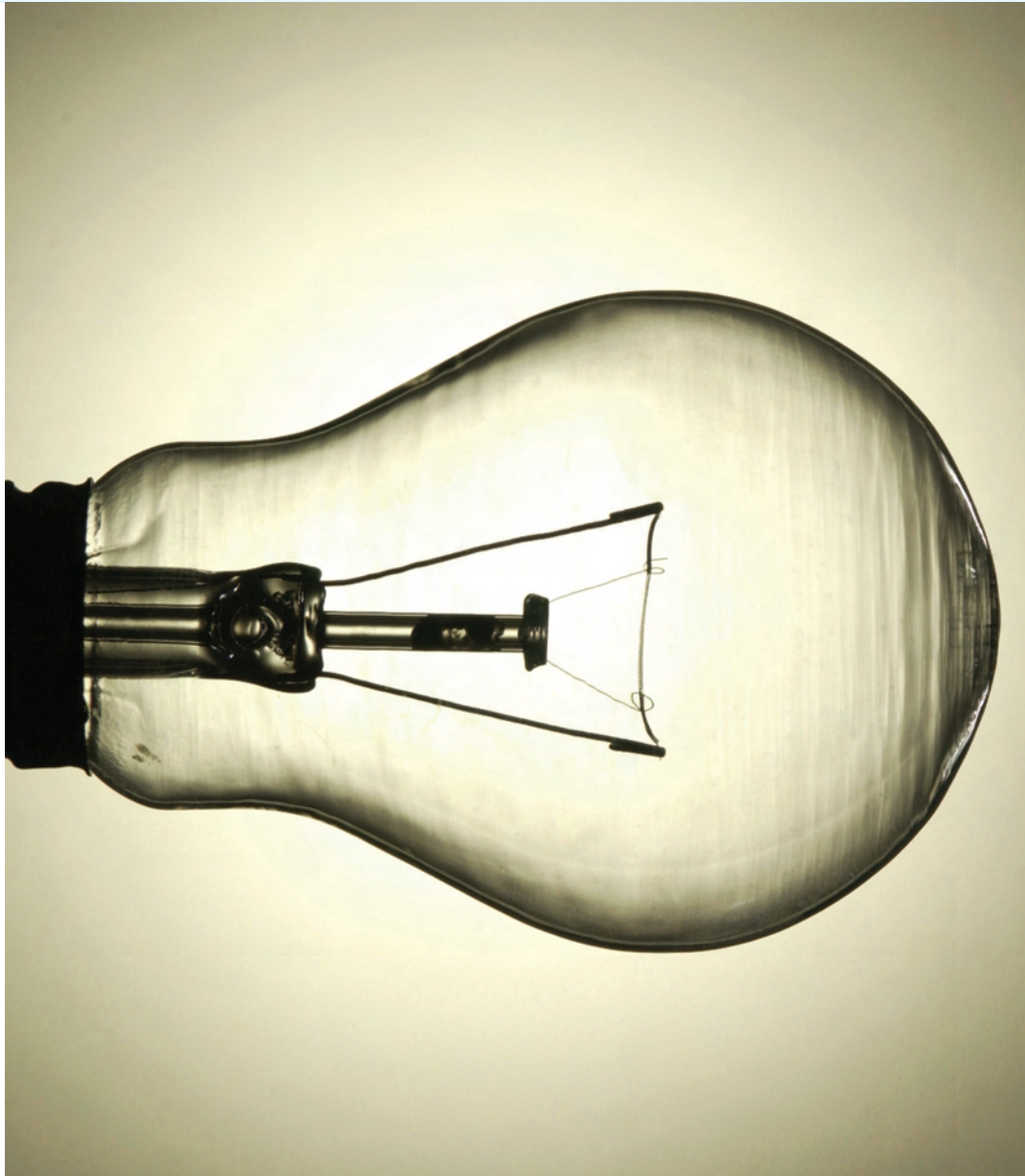
“요즘의 아이들은 거미줄을 봐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매우 어린 아이들은 하루 종일 질문을 하지만 점차 자라면서 서서히 입을 닫아 버리고 만다. ‘딴 짓하지 마라’, ‘엉뚱한 생각 하지 마라’ 등의 조언이 아이들의 생각을 점차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라. 질문은 호기심이 외부로 표출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호기심이 발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호기심이 있어야 질문이 생기는 것 아닌가. 질문이 있어야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올 것 아닌가. 세상 만물이 모두 호기심 천국인 어린이에게 그러한 환경을 허락해 줄 필요가 있다.”

조벽 교수는 정답 있는 문제를 푸는 것에는 한국 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제 다양성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우사인 볼트 수준으로 100m 달리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걸으면서 꽃향기를 맡는 것이, 또 누군가는 뛰어가며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게 행복일 수 있다. 결국 발명을 위한 길은 창의요, 창의를 위한 길은 개인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 아닐까. 발명특허



IP Focus  
01

# 행운의 발명, 오카시오의 축복!





하성원  
신원국제특허  
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세렌디피티(Serendipity)’라는 영화가 있다. 2002년 존 쿠삭 주연의 로맨스 영화로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녀 주인공이 각자의 연인에게 줄 선물을 고르다 백화점 장갑코너에서 우연히 만나 급작스런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지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어찌어찌하여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렇고 그런 이야기이다. 세렌디피티는 이와 같이 ‘뜻밖의 재미나 기쁨’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의 분야에서도 ‘세렌디피티’가 있다.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 특히 실험 도중에 실패해서 얻은 결과로부터 찾은 발견이나 발명’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용어이다.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발명 중에는 행운의 여신이 축복해준 세렌디피티적인 발명이 많다.

세렌디피티 발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페니실린이나 3M의 포스트잇이 있다. 페니실린은 플레밍이 박테리아를 배양하던 중에 우연히 혼입된 푸른곰팡이 때문에 발견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포스트잇은 실패작으로 묻혀져 있던 ‘잘 떨어지는’ 어설픈 접착제를 다른 동료가 찬송가 페이지를 기억하기 위해 쉽게 붙이고 뗄 수 있는 도구를 찾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나 전 세계인의 애용품이 되었다.

그 외에도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최초의 먹는 남성형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 렌트겐의 X선, 노벨의 다이내마이트, 찰스 굤이어의 가황법 등도 잘 알려진 행운의 발명들이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세렌디피티 발명이 한 가지 있다. 흡소핑계의 신화적인 히트 상품인 휴롬의 착즙기(원액기)가 그것이다. 휴롬 착즙기는 출시된 지 불과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수천억 대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현재 우리나라 각 가정의 실질적인 필수품이 되어 있다. 휴롬 착즙기의 성공 비결은 ‘저속착즙방식’에 있다. 과일 등 재료를 갈거나 부수는 등 충격을 주지 않고 저속으로 지그시 짜내어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액즙을 추출해내는 것이다.

그런 착즙기의 개발 과정이 너무도 세렌디피티적이다. 휴롬은 당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를 제조하였었다. 휴롬의 음식물처리장치는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짜내고 건더기만을 회수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에 대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은 철저히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좌절에 빠진 상황에서 휴롬의 설립자이자 발명가인 김영기 회장은 앙스트 블루테(Angstblüte, 불안 속에 피는 꽃)와 같이 절체절명의



그 상황에 기막힌 창의력을 발휘한다. 음식물 처리기의 원리를 그대로 응용한 착즙기를 발명한 것이다. 음식물 처리기가 물기를 짜내어 버리는 것이지만 착즙기는 그와 반대로 짜낸 액즙을 회수하여 응용하고 남은 건더기를 버린다.

이런 모든 세렌디피티 발명은 필경 '행운의 여신'이 보내준 따뜻한 미소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 신화에는 '행운의 여신'이라 불리는 신이 두 명 존재한다. '포르투나 Fortuna'와 '오카시오 Occasio'가 그들이다.

포르투나는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운명을 뜻하는 'fortune'이라는 단어가 그의 이름으로부터 기원하였고, 그리스 신화의 '티케 Tyche'에 대응한다. 포르투나는 운명의 바퀴를 가지고 이를 돌려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포르투나는 '운명의 여신'이라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인간은 그저 포르투나의 바퀴가 정해주는 대로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오카시오는 '기회'를 의미하는 'occasion'의 어원으로서 아르키메데스가 출생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의 도시인 시라쿠사의 거리에 그 동상이 서있다. 그 동상의 아래에 쓰여진 설명에 따르면, 오카시오의 앞 머리카락은 무성하여 알아보기 어렵고 뒷쪽은 대머리이며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다고 한다. 그래서 무성한 앞 머리카락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지만, 잘 발견하면 그 무성한 앞머리를 잡아 행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놓치고 지나가버리면 뒷 머리카락이 없어 잡기도 힘들고 특히 날개로 신속히 사라져버리니 다시는 붙잡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오카시오는 '기회의 여신'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면 세렌디피티 발명들은 포르투나가 어쩌다 우연히 부여하는 소극적 행운의 축복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달려가는 오카시오의 앞 머리카락을 잡아채어 적극적으로 취득한 기회의 축복을 받은 것일까? 세렌디피티 발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우연과 행운을 포함하여 그 발명이 만들어지게 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더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는 '준비된 행동'이다. 세렌디피티 발명가들은 그 발명의 시점에 예외 없이 무언가를 위해 매우 열정적으로 혹은 절박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뭔가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은 행운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된 유인책이다. 복권 당첨을 원한다면 적어도 복권을 구입하는 정도의 사전의 '행동'이 필요한 것과 같다.

둘째는 '감수성'과 '통찰력'이다. 세렌디피티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우연한 현상의 모습으로 바람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 조금 둔한 사람에게는 그저 미풍처럼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미미한 그런 해프닝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미미한 해프닝들을 날카롭게 인지하고 그것의 내재된 의미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 즉 감수성과 통찰력이야말로 세렌디피티라는 행운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그 감수성과 통찰력의 그릇이 커야만 담아낼 수 있는 행운의 크기도 크다. 그리고 이 그릇은 대체로

열정, 우호적 관심, 희망, 믿음, 사랑, 비전, 절실함 등과 같은 질은 인간적 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렌디피티의 가장 중요한 화용점정의 요소는 '실행력'이다. 실행력은 용기와 수행 능력의 조합이다. 어떠한 행운의 발명이라도 그걸 현실화시킬 수 없다면 한낱의 꿈에 불과하다. 세렌디피티 발명가는 자신이 깨달은 행운을 현실화하기 위해 새로운 불확실에 도전하고 많은 저항과 고난을 극복하여야만 한다. 그것은 진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수반한다.

이와 같이 세렌디피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제대로 역량을 갖추어 준비하고 행동한 사람만이 쟁취하여 누릴 수 있는 '기회'의 축복인 것이다. '기회'의 쟁취는 준비된 행동, 감수성, 통찰력, 실행력의 교집합 영역에만 존재한다.

그렇다. 행운의 발명 세렌디피티는, 포르투나의 바퀴가 어쩌다 운 좋은 위치에 멈추어 받게 되는 그저 단순한 행운의 축복이 아니다. 세렌디피티는 오카시오의 앞머리를 절묘한 타이밍으로 잡아채어 얻은 기회의 은총이다. 발명특허

IP Focus  
02

# 유럽시장 브랜드 진출의 첫걸음, 식별력 있는 상품인가





정태호  
원광대학교  
로스쿨 교수

세계 각국의 특허청에서는 상표가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표 등록을 허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최근의 국제적인 상표등록출원이나 사용경향을 보면, 단일의 용어를 사용한 상표보다 로고와 문자를 결합하거나, 다양한 의미를 가진 문자들을 특이하게 결합하여 수요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결합상표를 출원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상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상표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특허청의 상표심사 시 이와 같은 결합상표의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력을 인정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거대한 수출시장 중에 하나인 유럽공동체(EU)에서도 출처표시로서 기능을 할 수 없고 식별력이 없는 결합상표들에 대해서 그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유럽으로의 상표출원 전에 유럽공동체상표청에서 과연 어떤 결합상표들에 대해서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력을 부정하여 등록을 거절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미리 이해하고 있는 것이 유럽시장에서의 브랜드활용 전략상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상표청에서의 결합상표들에 대한 식별력 판단사례들을 보면, 'Biomild'라는 상표는 지정상품인 요구르트에 관하여 부드럽고(mild), 유기적인(organic) 요구르트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거절되었다. 그리고 'Pure digita'은 디지털 라디오(digital radio)에 관하여 디지털 음향이 항상 순수한 것이라거나, 또는 디지털 신호를 순수한 음향으로 변형시킨다는 의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역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그리고 'inhouse-Outsourcing'도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단순히 회사 인(inhouse)에서 남겨두는 것과 외주(Outsourcing)를 줄 수 있는 행위들을 구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절되었다.





그럼 이러한 결합상표들이 어떠한 기준 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을까? 구체적인 판단기준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이하와 같은 사항들은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명칭들이 식별력이 있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되었을 때에, 원칙적으로 그 상표는 전체로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명칭과 식별력이 없는 단어 또는 도형요소들의 결합에 있어서는 결합된 상표전체가 식별력이 있다면 그 상표 또한 식별력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예로서는 각각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방식이 기존의 거래계에서 생각지 못했던 독특한 것이거나 또는 그 구성요소들이 단순히 결합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라면 해당 상표는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결합상표의 구성요소들 각각이 식별력이 없다면, 그 결합의 식별력여부는 단지 그 결합이 이루어진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제품의 품질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문자들 또는 숫자들 간의 단순한 결합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TRV4'가 'Thermostatic radiator valve(자동온도조절의 라디에이터 밸브)'를 단순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식별력이 인정되지 못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기도 하였다.

한편, 상표출원 시 글자체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을 고려하여 볼 수 있는데, 결합상표를 표준화된 글자체 또는 이탤릭체로 표시하는 것은 그 상표를 식별력이 있게 만들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유럽공동체상표 제1심법원에서는 'Elektronica' 및 'BioD'를 표준화된 글자체나 이탤릭체로 표시한 것은 모두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기서 표준 글자체들은 단지 'Arial체'와 'Times New Roman체'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소비자에 의해서 단지 또 다른 흔한 글자체로 인식되는 모든 글자체들도 해당된다. 게다가 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결합상표를 대중에게 표준화된 장식과 결합하거나, 약간 경사지게 한다던가, 틀에 박힌 형태로 한다던가, 문자에 색채만 입힌다던가 또는 다른 식별력이 없는 그래픽적인 요소들과 결합하여 단순하게 표시하는 것은 그 상표를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등과 같은 결합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문자들의 표준화된 글자체의 표기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등록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합상표에 있어서 그 도형이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며, 그 예로서는   와 같은 상표들이 있었다.

그런데 유럽공동체상표청에서 결합상표의 구성요소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기능적인 용어로서 흔히 사용되는 상징인 '@'표시나, 결합표장에 있어서 표장 맨 앞에 붙는 'e-'표시나 현재 통화단위를 나타내는 표시인 '€', '£', '\$' 등은 모든 상품들 또는 서비스업들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유럽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상표의 창작 후 출원 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유럽공동체상표청에서는 영문자 1자만으로 되어 있거나, 숫자 1자만으로 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7'로만 되어 있는 상표는 지정상품인 자동차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영문자 1자만으로 되어 있거나, 숫자 1자만으로 되어 있는 상표가 단순한 상표의 형태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도안화된다면, 등록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등과 같은 상표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식별력이 인정되어 그 등록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최상위 도메인네임을 나타내는 '.com'과 같은 것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줄 수 있는 위치를 단지 지정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는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따라서 'www.books.com'은 인쇄물에 관하여 'books'로만 되어 있는 상표로 보아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기타 'Ltd.', 및 'GmbH'와 같은 회사의 법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약칭들도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는 구성요소로 보고 있으며, 회사, 사람, 클럽, 협회 등을 나타내는 영문명칭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national', 'international', 'global' 등과 같은 단지 상위의 지리적인 사업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시는 홀로 사용될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식별력이 없는 명칭들과 결합되었을 경우에도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상품 및 서비스업들의 상위의 품질이나 기능을 단순하게 나타내는 'Extra', 'FLEXI('flexible'과 동의어로 사용)', 'Multi', 'Mini', 'Plus',

'Bio' 등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또는 다른 식별력이 없는 명칭들과 결합될 경우 모두 거절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world' 및 'land'는 상품과 서비스업의 매우 많은 특별한 형태가 동일한 장소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만 나타낼 뿐이므로, 이러한 것이 다른 식별력이 없는 명칭들과 함께 출원된다면, 그 결합상표도 역시 식별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서비스업들에 대하여 'investorworld'는 이와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 기타 실거래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series' 및 'type'와 같은 명칭들뿐만 아니라, 'Mega', 'Jumbo', 'Star', 'Trans'도 역시 결합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Transeuropa' 및 'Megatours'도 식별력이 없는 구성요소들의 단순한 결합으로 보아 결합상표 전체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등록이 거절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유럽공동체상표청에 결합상표를 출원 시에는 식별력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숙지하고 이것에 따라 자신의 상표가 등록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당 지역에서의 상표등록에 관한 특유의 판단기준에 대한 이해 없이 결합상표를 만들어 출원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것에 따른 값비싼 출원비용을 낭비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별력 판단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합상표를 만들어 출원한다면, 상표권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유럽시장으로의 브랜드 진출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발명특허

IP Focus  
03산업 현장의  
혁신을 주도할  
미래  
지식근로자

90년대 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단어 중에 신지식인이 있었다. 이는 피터 드러커의 Knowledge Worker를 번역한 것이다. Knowledge와 Worker는 상호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고 본다. 지식(Knowledge)은 석·박사나 연구자, 대학 교수 등과 관련되고, 현장 근로자(Worker)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러한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발명·특허 교육이 왜 필요한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도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지적재산권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IP-Meister 사업<sup>1)</sup>을 시작하자, 마이스터고에 IP 교육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2012년도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자 부정적 의견이 더욱 더 강해졌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차피 단순 기능공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지식과 명령에 복종하는 직원일텐데 이들에게 IP 교육은 사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과 관련이 있다. 지식활동은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현장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활동이다. 생산 공장의 분임(分任)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호텔에서 일을 하는 청소부에게도 가능하다. 오히려 이들이 공정혁신이나 제품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기계를 개량하는 아이디어도 실험실이 아닌 기계를 다루는 근로자에게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생산현장의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한 공정혁신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품혁신이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IP(특히 산업재산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제품에 숨결을 불어 넣은 현장인력(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IP역량을 갖고, 이를 토대로 현장을 혁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IP 교육을 시킨 것이 우리나라 산업을 밑바닥 단계에서부터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강하게 기대한다.

**발명·특허 교육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도움을 주는 방법**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특허청이 함께 수행하는 업무는 세 가지이다. 하나는 발명·특허 특성화고 사업이고, 또 하나는 IP-Meister 사업이며, 마지막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on-line 지적재산권 무료 강의이다. IP-Meister 사업과 지적재산권 무료 강의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로 발명·특허 특성화고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면서 발명·특허 교육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특허청과 협력하여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한 「발명·특허 특성화고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적 취업률이 향상된 것을 넘어 기업의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1,334건 출원하였고,





김환식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장



이 중에서 101건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한때 동 사업의 종단을 고려했던 적이 있었기에 그 고민을 해결해야만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사업이 흔들리면 특허청 지원을 믿고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과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학교들이 받게 될 충격이 심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발명·특허 특성화고가 존재했던 이유는 특성화고가 직무역량과 취업역량 배양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기술교육이나 공업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특성화고의 정체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발명·특허 특성화고는 특성화고가 기술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발명·특허 특성화고가 쉽게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도 역시 특성화고의 이러한 모호한 정체성 때문이었다. 일반인의 인식은 특성화고는 기술교육기관이 아니라 취업을 해야 하는 직업교육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이었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의 결합점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양자가 완전하게 결합되지 못한 채 존재해왔다. 특히 특성화고가 대학 진학 중심으로 변하면서부터 이러한 연결고리는 더욱 약해져갔다. 나아가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저조했을 때에 입학한 학생들의 수준도 높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발명·특허 특성화고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원했던 발명·특허 특성화고 교육목표는 성취하기가 곤란

했다. 그러다 보니 발명·특허 특성화고와 특허청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고, 사업 모델이나 교육모형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특성화고가 이제는 본질상 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명·특허 특성화고 교육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직무발명에 대한 강조가 시작되면서 취업과 연계되는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학교들도 취업과 발명·특허 교육을 결합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의 발명·특허 교육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다. 더 확대·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존재한다. 필자는 발명·특허 교육은 3가지(진로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기술교육) 측면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각각의 성격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이 앞으로 그려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자료와 정보, 그리고 전문인력과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먼저, 진로교육으로서의 발명·특허 교육이다. 발명·특허 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디자인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이 기능은 발명교육 이름으로 시행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맞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성화

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는 이론 수업보다는 실무 중심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이론, 또는 과학적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이해해야만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발명·특허 교육을 통해서 지식, 이론, 원리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진로의식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앞으로 개별 전공이나 직업분야를 염두에 두고 발명·특허 교육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교육으로서의 발명·특허 교육이다. 직무역량에 포함되는 기술역량과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가져야 한다. 직업교육 측면에서의 발명·특허 교육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i) 모든 학생들이 갖춰야 할 공통역량 배양을 위한 발명·특허 교육, ii) 특허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취업역량 배양을 위한 발명·특허 교육, 그리고 iii) 이를 토대로 한 창업역량 배양을 위한 발명·특허 교육이 그것이다. 공통역량 배양 교육은 2012년부터 온라인 무료 강좌를 통해서 실시되고 있다.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하거나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나로 수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명·특허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체계에 맞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발명·특허 교육은 하나의



각주)

- 1) IP-Meister 사업은 2011년 처음 시작되었고, 2012년에는 특성화고로까지 확대되었다. 학생들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특허까지 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울산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기술이전까지 하게 되었고, 기업은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산학협력의 모범적 사례도 만들어진 바 있다.
- 2) 이러한 지식을 직업교육 쪽에서는 기저(基底)지식(underpinning knowledge)이라고 한다. 지식 나무(knowledge tree) 상의 분과 학문에서 이루어놓은 내용 지식을 학문체계나 지식체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활동의 기저에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embedded knowledge나 related knowledge도 유사한 의미이다.
- 3) 정부의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금년 2월 졸업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 중에서 중소기업 연구원으로 취업한 숫자가 184명에 이른다. '12년 11월 기준 조사이므로 지금은 더 많은 학생이 연구원으로 취업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대기업 연구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교과체계나 학문 또는 기술체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와 같은 교과처럼 핵심교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에 고려해야 한다. 현재 가장 가까운 교과는 기술교과이다. 그렇다면 기술교과에 발명·특허 교육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을 받게 된 학생들은 현장에서 회사의 업무 플로우(work flow)의 개선, 작업환경의 개선, 원가 절감 등을 위해서 제안활동을 하게 되고, 분임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취업역량을 위한 발명·특허 교육이다. 직업교육에서의 발명·특허 교육은 일차적으로 특허분야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배양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변리사 사무원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에도 특허 관리 인력이 필요하기에 이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의 일부는(예를 들면, 마이스터고인 인천전자마이스터고는 중소기업 연구원을 지향하는 별도의 인력양성 track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연구자로서 일을 하게 된다<sup>3)</sup>. 이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 측면에서 발명·특허 교육은 그 역할이 지대하다. 발명·특허 교육은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되며, 인력양성의 선진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IP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하다. 조금만 폭넓게 생각하면 특허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창업역량 배양을 위한 발명·특허 교육도 중요하다. ICT나 디자인 등 일부 분야는 졸업과 동시에 창업이 가능하다.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창업이 이뤄져야 하며, 기술창업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직 발명·특허 교육이 창업과 연계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창업과 연관된 발명·특허 교육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IP-Meister 사업의 세부 사업의 하나로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학교기업 사업과의 연계도 고려할 만하다.

세 번째는 기술교육으로서의 발명·특허 교육이다. 기술 교육과정 각론은 '생활 속에서 기술과 관련되는 문제를 탐구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실과 교육과정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 교과 간 통합적 접근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제대로 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발명·특허 교육이다. 이를 통해 사람과 기술 사이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강조



하고 있다. STEAM교육도 발명·특허 교육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공업교육은 공학기술을 배우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학에 내재되어 있는 원칙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기술, 산업과 사회, 공학재료, 공학역학, 그리고 제어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실질적 적용에 대해 배우게 된다. 공학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며, 공학 설계 과정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 공학 설계 과정을 거쳐 공학자들이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는 각종 물건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시스템 등을 구안하게 된다. 학생들은 발명·특허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역학이 무엇인지, 재료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기술과 소통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 발명·특허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

'12년 11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특허청은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업무협력협약에서 제시한 각종 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발명·특허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선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학생은 발명·특허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한다. 발명·특허 특성학교 중의 하나인 삼일공고가 2012년 시행했던 직무 발명교육은 engineering design process를

그대로 수행한 것이다. 발명·특허 특성학교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발명교육 사업을 통해서 많은 교육혁신사례가 이미 만들어졌다. 이러한 사례를 발명·특허 교육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고 이를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발명진흥회는 삼일공고나 대광발명과학고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하나의 교육모델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발명·특허라는 명칭이 갖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시에 단점도 존재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허나 발명을 강조하는 순간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혁신 활동은 중시되지 못할 수 있다. 발명과 더불어 혁신에 대한 관심도 요구되어야 한다.

셋째, 특허청에는 다양하고 엄청난 규모의 발명·특허 관련 사례가 존재한다. 과학이 기술이 되고, 기술이 제품이 되는 또는 기술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발명·특허를 통해서 창업을 한 사례도 있을 것이다. 이들 사례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산업별, 직업별, 기술별로 특허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에서 심사되는 수많은 특허심사 자료야말로 교육학습자료의 보고이다. 창의성교육에 필요한 수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많은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들을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특허청의 발명교육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것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발명·특허 교육을 새롭게 구안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발명교육이라는 차원을 넘어 학교와 교원의 산업재산권 역량과 혁신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1C 교육혁명은 학교교육에서 지식주입교육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지식을 아는 학습(learning to know)'도 중요하지만, 넘쳐나는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학습방법론 공부(learning to how to learn)'도 중요하다. 이 방법론 교육을 누가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발명·특허 교육이 이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발명·특허 교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본다. 발명특허



USA

**미국 특허상표청,  
유럽 특허청과 공동특허  
분류체계 공식 출범**

출처 : [www.uspto.gov](http://www.uspto.gov)

지난 1월 2일, 미국 특허상표청(이하 USPTO)은 유럽 특허청(이하 EPO)와의 공동특허분류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 체계를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CPC 체계는 USPTO 와 EPO에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특허심사 및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당국들이 특허절차상 동일한 특허분류체계를 활용하게 하고자 개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USPTO와 EPO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CPC 체계의 개발을 위한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2011년 10월 25일에는 동 프로젝트의 진척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용 웹사이트([www.cpcinfo.org](http://www.cpcinfo.org))를 개설한 바 있다. 그리고 USPTO와 EPO는 CPC 체계가 2013년에 공식으로 출범하기 이전인 지난 2012년 9월 28일에 동 체계를 완성해 일반에 소개했다.

CPC 체계는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체계에 근거한 약 25만개의 분류기호(classification symbols)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USPTO는 CPC 체계가 미국과 유럽의 특허체계상 최상의 특허분류 관행들을 통합시켰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USPTO와 EPO의 이용자들이 선행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USPTO는 또한 전 세계 45개 이상의 특허청에서 2만 명 이상의 특허심사관들이 CPC 체계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통해 동 체계가 국제기준으로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USPTO의 David Kappos 청장도 CPC 체계가 USPTO와 EPO 간의 업무 중복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또한 EPO의 Bendit Battistelli 청장은 EPO와 USPTO가 지난 2010년 10월 25일에 CPC 체계 개발 프로젝트를 착수한 이래 매우 짧은 시간 안에 CPC를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으며, 동 체계를 통해 EPO와 USPTO의 특허절차들이 더욱 밀접하게 조정되고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Bendit Battistelli 청장은 이러한 CPC 체계가 세계 특허체계들의 조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ina

## 중국 국가지식산업권, 2013년 지식재산 중점 업무 발표

출처 : www.sipo.gov.cn

지난 1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업권(SIPO)의 텐리푸 국장은 「2013년 전국지식산업권 국장 회의」에서 2013년 지식재산권 업무의 10대 중점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①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 실천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점검
  - 「2013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추진계획」의 제정 및 실시, 「2013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의 업무 시행, 「국가지식재산 사업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 중간 점검 실시
- ② 지식재산 관련 법률 개정작업 실시
  - 「특허법」 개정추진, 「직무발명조례」의 제정 및 의견수렴, 「특허대리조례」 개정 및 기타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입법 추진
- ③ 지식재산 관련 법집행 능력 제고
  -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지도문서 제정,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집행 전담행동 실시 및 지식재산 권익보호센터 설립 등
- ④ 지식재산 자금운용을 위한 시스템 강화
  - 지식재산 투자·융자를 위한 기반 구축, 지식재산 보험설계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시스템 확립 등
- ⑤ 지식재산 심사체계 구축
  - 특허 심사 효율 증대 및 지식재산 심사능력 향상, 특허심사 협력센터 건설 등
- ⑥ 지식재산 서비스체계 수립
  -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 및 「지식재산 서비스업 배양과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실행, 지식재산 서비스기관 양성,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업무 지원 등
- ⑦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 보완
  - 「지식재산 인재 체계 건설을 위한 의견」 제정,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요강」,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 실시, 고급인재 양성계획 등 실시
- ⑧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지식재산 업무 강화
  - 「전략적 신흥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 업무수행,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지식재산 정보분석 및 지식재산 평가업무 시행
- ⑨ 지식재산 문화건설을 위한 홍보업무 실시
  - 초·중등학교에 지식재산 교육 및 홍보 강화, 고등 교육기관에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개설 장려 등
- ⑩ 지식재산 대외교류 확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IP5 국가들과의 지식재산 교류 확대



Japan

## 일본 프렌테인터내셔널, 구취발생을 방지하는 유산균 개발로 유럽에서 특허 등록

출처 : www.news.mynavi.jp

지난 1월 7일, 일본 프렌테인터내셔널(Frente International)은 구강내 환경을 정상화하는 유산균 살리바리우스(Lactobacillus Salivarius T12711, LS1)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식품에 관한 특허를 유럽 주요 국가에서 2012년 12월 26일자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동 특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의 8개국을 지정국으로 등록되었다.

현재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성인의 약 80%라고 알려져 있으며, 일본에서는 치주질환이 국민병(후생노동성, 2005)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최근 치주질환은 단순한 조직 감염 증세에 그치지 않고 당뇨병, 순환기계통 질환(심근경색 등) 및 호흡기 질환의 위험인자로 주목되고 있다. 치주질환의 주된 치료법으로 외과적 수술 또는 항생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없는 치료·예방법 개발이 요구되어져 왔다.

## Global Report

최근 소화기계통의 감염증 예방수단으로서 Probiotics(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가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프렌테인터내셔널은 지난 2002년 수많은 유산균 중에서 유산균 LS1이 치주 질환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산균 LS1은 치주병원 세균을 억제하여 우식 발병·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와 타액의 pH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산균 LS1은 대표적인 치주병원세균인 Porphyromonas gingivalis균 및 Porphyromonas intermedia균을 억제하여 구강내의 세균 균형을 개선하여 치주 질환 개선 및 구취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 치주질환은 잇몸과 치아 사이에 존재하는 V자 모양의 틈을 박테리아가 공격하여 치주인대와 인접조직을 손상시키는 질환임

\* Probiotics는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등 인체 내에서 유용한 활동을 하는 유용한 균을 말함



EU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삼성전자에 표준특허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통지

출처 : [www.europa.eu](http://www.europa.eu)

지난 2012년 12월 21일,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원회는 예비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통해 삼성전자가 Apple을 상대로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EU의 여러 국가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이는 삼성전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삼성전자와 Apple에 각각 통지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월부터 삼성전자의 독점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02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약의 내용은 EU 독점금지규정(Council Regulation No 1/2003)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심사보고서 통지는 독점금지규정 위반 여부 조사의 공식절차로,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며 해당 당사자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항변을 위한 구두 심리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당사자의 변론이 있을 후에만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규 위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위원회는 관련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동시에 해당 위반업체의 연간 전 세계매출 총액의 10% 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유럽 내에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허가 필수표준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에 해당된다면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에 관한 협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유럽 시장에서 Apple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Apple의 iPhone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 경쟁위원회 Joaquín Almunia 부위원장은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이 산업표준이 되고 이를 통해 기업 및 소비자에게 많은 이득을 발생시킨다면 해당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UK

## 영국 지식재산청, 소비자의 저작물 이용의 자유 확대 정책 발표

출처 : [www.ipo.gov.uk](http://www.ipo.gov.uk)

지난 2012년 12월 20일, 영국 지식재산청(이하 UKIPO)은 소비자의 저작물 이용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활발한 이동성 및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의 저작권 체계를 반영하여 저작권법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며, 신규 정책에는 개인적 사용, 패러디와 인용을 위한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는 2011년 5월에 발표된 「Hargreaves Review」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UKIPO가 지난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2년 3월 21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며, 기존의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저작권법의 이용에 혼동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통해 향후 10년간 영국 경제에 최소 5억만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발표된 저작권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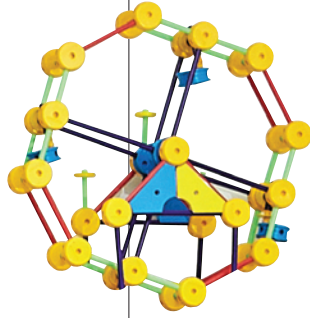
사적 복제(Private copying)는 음악 파일 모음집이나 전자책과 같은 것을 태블릿 PC, 핸드폰 또는 개인 클라우드에 옮기는 등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장비나 장치에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를 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다만 온전히 개인적 이용으로만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 목적으로는 교육 분야의 저작권 라이선싱을 간소화하여 교사들이 교실에서 쌍방향 화이트보드 또는 유사기술을 통해 저작물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거리 학습 교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인용 및 뉴스 보도 관련해서는 인용의 사용이 공정 이용이며 출처가 명시되는 한 저작물의 인용 허용을 더욱 확대했으며, 패러디, 캐리커처 및 모방(Parody, caricature and pastiche)은 공정 이용을 기반으로 진정한 패러디(genuine parody)를 위한 제한적 복제를 허용하나 패러디를 가정한 복제는 금지한다.

조사 및 사적 연구(Research and private study)로는 비상업적 연구 및 사적 연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성녹음, 영화, 방송물 등을 복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용자 복제(user copying)와 도서관 복제(library copying)가 포함된다.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P)



#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준비하다

인재개발연구본부  
창의인재육성팀



20세기가 지식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창의성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인터넷 혁명으로 인력이 효율화되고 정보 유통이 빨라졌다. 과거의 경험보다는 어떻게 새로운 흐름에 맞춰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인재개발연구본부 창의인재육성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창조력과 상상력을 가진 미래 인재의 육성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들.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온 날들이지만 그들이 머무는 공간만큼은 열정으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 거목처럼 오랜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의인재육성팀

창의인재육성팀은 우리나라 발명교육의 태동기부터 시작된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 (1977년 시작)»,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1988년 시작)»,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 「발명장학생 선발»,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P)», 「P-마이스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발명소양을 갖춘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명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발명교실」을 전국 시·도에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명교육을 위한 자료·교육프로그램의 발간 및 보급, 「발명특허 특성학교」 지정 및 운영, 「EBS 발명교육 프로그램」 등 발명교육 문화 조성 및 대중화를 위한 기반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창의인재육성팀을 리드해 나가고 있는 한정무 팀장은 “창의성이야말로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발명을 통해서 학생들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를 비롯해 총 10명의 창의인재육성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전국적인 발명교육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 인내(忍耐)마저 달콤한 도전의 열매

쉬지 않고 달려온 창의인재육성팀은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전국에 발명교실을 설치·운영하면서, 발명교육 이수학생 및 발명·창의력대회 참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발명교실 교육인원은 '07년 597,060명(182개 기관)에서 '11년도에는 777,813명(190개 기관)으로 늘었다. 발명·특허 특성화고도 '08년도 4개교에서 '13년도 7개교로 늘었다.

학생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실적도 최근 5년간 약 1.5배 증가했다. 팀 내에서 '발명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며 기획과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김승보 과장은 “5년간 초·중·고 학생 발명자 출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07년 2,551건에서 '11년도 3,721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생들은 발명을 기반으로 창업과 취업에 성공했고, 발명은 학업 성적 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발명을 기반으로 기업을 창업하거나

발명특허 기술을 기업에 이전, 특성화고 발명·특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역량이 강화된 것이다.

청소년 발명이 프로그램(MP)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수진 주임은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사례들도 많다고 이야기한다. “학생발명전시회를 통해 발명에 관심을 갖게 된 KAIST 박사과정 황성재 씨는 '10년에 발명을 통한 기술이전 수입이 8억 원에 이릅니다. 그는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죠. 그리고 활발한 발명활동으로 발명장학생으로 선발됐었던 표철민 씨는 한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며 (주)위자드웍스('06)와 루비콘게임즈('10)를 창업·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03년도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인식 기술 특허 4건을 출원하였으며,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지'가 선정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젊은 기업이 25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자유롭고 자율적인 소통의 문화

창의인재육성팀은 상호존중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상당히 좋은 팀이기도 하다. 업무 특성상 주말 행사가 많은 점을 상호 협력으로 극복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책임감에 바탕을 둔 자율성과 주인의식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세상의 변화를 리드하는  
'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융합 마인드를 갖춘  
창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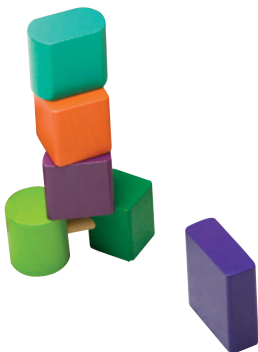
발명특허 특성화고 사업을 맡고 있는 전정림 계장은 '한다면 한다'는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녀는 "창의인재육성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단기간에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며, "그러다보니 구성원 모두가 끈기 하나만큼은 최선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발명 글짓기·만화, EBS 발명교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욱 과장도 이에 맞장구를 쳤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원해서 온 경우"라며, "그렇다보니 일을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 두는 경우는 없으며, 처음 맡게 된 임무라도 큰 변동이 없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가에 기여한다는 보람으로 미래를 준비하다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을 잘 이어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양적 팽창만큼 질적 품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사람만이 아닌, 창의인재육성팀원 모두의 역량과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도 발명교육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한정무 팀장. 그는 팀원들에게 "부단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했으면 한다"며, "틀린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마음 편한 직장을 만들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어두운 밤바다를 향해하는 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등대처럼, 창의인재육성팀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발명특허





01

# 아이디어가 샘솟는 창의 활동 프로젝트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지식재산 봉사활동

## 어깨동무

어둠이 짙게 깔린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남양주시 광동고등학교 발명 동아리실이 환하게 웃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소리로 들썩였다. 한국발명진흥회 미션인, 전 국민의 창의적 사고와 발명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남양주 지역 사회적 배려계층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봉사활동을 펼치는 '어깨동무'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필이 몽톡해질수록 학생들의 꿈도 영글어 갔다.



**세상을 바꾸는 창의적 사고, 어렵지 않아요!**

‘어깨동무’란,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지식재산 봉사활동으로 지식재산을 통해 창의와 인성이 조화된 인재를 만들어가는 사회봉사이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직원 8명(이경표, 정진상, 김세원, 박기문, 이윤조, 손다미, 김미희, 최윤미)과 남양주 사회적 배려계층 고등학생 및 교사 20명이 참석했다.

준비해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과학실을 발명 동아리 실로 리모델링하면서 정리가 안 된 교실을 어깨동무 봉사단원과 학생들이 함께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곧바로 고민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로 학생들의 학업고충, 이성 관계, 진로, 심리 등에 대한 고민이 다수였다. 김세원 주임연구원은 “사실 청소년기에 처음부터 이런 고민들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다”며, “때문에 봉사단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온 돈으로 준비해온 피자과 간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유도하고 상담으로 이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상담시간이 끝난 후에는 진로탐색검사를 이어갔다.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탐색을 위해 개발된 STRONG 검사로, 개인의 진로성숙도 및 흥미유형의 특성을 이해하여 이와 관련된 직업 및 진학정보 제공, 진로성숙도, 흥미 등 281문항을 통해 검사를 진행했다. 이윤조 전문위원과 최윤미 연구원은 STRONG 검사를 결과 분석한 후, 올해 2월에 학교를 재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집단해석 상담 및 개별 상담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더 큰 꿈,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재능과 관심사가 만날 때 우수한 인재가 탄생하듯이, 어깨동무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찾고, 발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특강도 열렸다. 이경표 수석연구위원과 박기문 전문위원의 ‘나는 미래의 기업가를 꿈꾼다’라는 내용으로 진행된 특강에서는 발명의 이해, 지식재산권 사례, 발명이 바꾼 역사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발명은 나의 힘(청소년 발명교육 우수사례집)’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업이 부진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꿈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기 위한 감성적인 내용을 많이 전달했다.

어깨동무 봉사단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보다 봉사활동을 통해 팀워크가 향상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조직력 강화의 효과를 얻었다. 어려운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어떻게 학생의 고민을 치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의 의견교환이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직접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상담 및 코칭, 발명체험, 발명교육 컨설팅 등 3가지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더 정교화하여 학생 및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깨동무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발명특허

“어깨동무 봉사단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보다 봉사를 통해 팀워크가 향상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조직력 강화의 효과를 얻었다”



01. 지식재산 봉사활동 어깨동무 프로젝트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02. '나는 미래의 기업가를 꿈꾼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시간! 03. 피자과 간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고민상담이 진행되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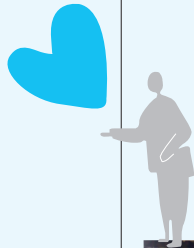
03

#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 KIPA 사회봉사활동

## 연탄배달 · 무료급식

‘성공의 크기’는 ‘봉사의 크기’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다.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만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돕는 유일한 길이 남을 돕는 것이라는 진리를 깊이 인식할 때, 우리 사회는 행복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01.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차곡차곡 연탄을 쌓았다. 02.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봉사단원들

### 사랑의 연탄으로 불씨를 지피다

지난해 11월 22일, 추운겨울이면 더욱더 어깨를 움츠리고 있을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 KIPA 사회봉사단-2007년 4월에 발족한 KIPA 사회봉사단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비전을 품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 발 벗고 나섰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서울 연탄은행을 방문해 저소득층 가구 및 독거노인에게 쌀과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배달하는 봉사 활동을 적극 펼친 것이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KIPA의 온정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5명의 봉사단원들은 연탄을 한 장 한 장 나르고 쌓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양태욱 주임은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봉사활동만이 아닌 이렇게 직접 몸을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면서 “연탄나눔 운동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슴에 사랑의 불씨가 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료들이 함께 봉사하며 소통할 수 있었던 훈훈했던 시간. 서로를 격려해주는 열정 덕분에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등의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들이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했다”고 이야기했다



03

03. 배식을 하는 봉사단원들도 식사를 맛있게 하는 이웃들도 모두 즐거운 표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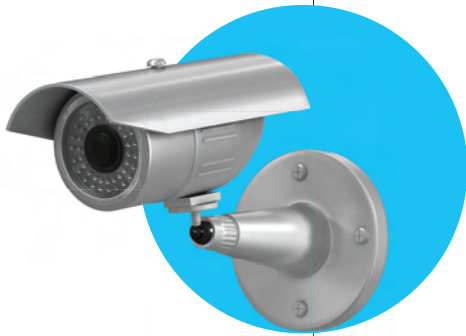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소외된 이웃과의 사랑나누기 일환으로 KIPA 사회봉사단이 다일복지재단을 방문해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민봉기, 이두성 팀장을 비롯해 KIPA 직원 39명이 동참했다. 연말을 앞두고 노숙자와 몸이 불편한 어르신께 손수 준비한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현장에서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봉사활동이어서 더욱 그 의미가 컸다.

임지나 주임은 “다일복지재단에 오기 전,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몰려들어 식사만 하고, 또 급하게 떠나가는 그런 분주한 곳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곳에서의 무료급식 봉사활동은 달랐다”면서,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등의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들이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했다”고 이야기했다.

앞으로도 한국발명진흥회는 정기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명특허

# 불황을 딛고 기술력으로 승부하다



(주)오리온테크놀로지



1997년, IMF의 여파가 몰아친 대한민국은 누구나 힘겨운 신음소리를 내던 시기다. 너나 할 것 없이 불황의 피해를 그대로 입었지만, 이 가운데에도 높은 의지로 앞을 내다보기 위해 부단히 애쓴 사람들이 있다. (주)오리온테크놀로지의 김월섭 대표도 그러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1997년 이후 마음이 맞고 실력을 보유한 임직원을 모아 자체 기술개발로 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는 위기 후 국내 기술시장의 패러다임과 변화의 길목을 찾기 위해 두 눈과 머리를 모두 이용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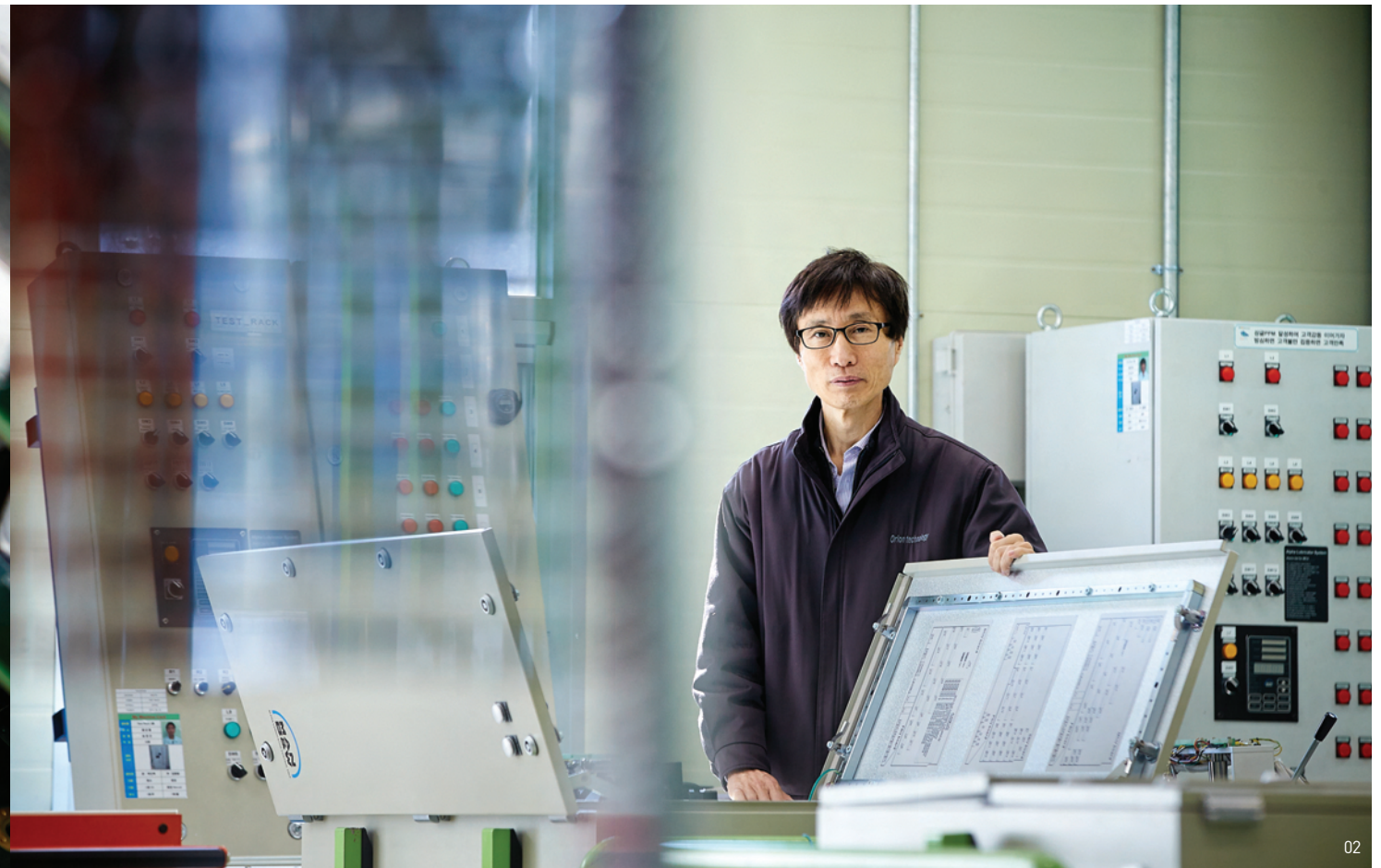


## 컨트롤 보드 중심의 사업으로

오리온테크놀로지는 보안 산업에 기반을 둔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회사다. CCTV 카메라와 DVR, IP work 등 보안을 위한 영상가시장치를 개발하고, 이와 함께 유조선·컨테이너선과 같은 5천톤급 이상의 대형 저속 선박용 엔진에 관련한 전자제어식 종합 컨트롤러 등을 새롭게 고안하는 일을 주로 한다.

오리온테크놀로지의 출발은 약 15년 전, 오리온전기의 워크아웃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던 도중 풍부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시작됐다. 오리온전기에서 모니터 디스플레이 컨트롤 보드(Display Control Board) 개발 업무를 수행한 만큼 다년간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살릴 방법을 찾다가 신규회사를 창업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월섭 대표는 “IMF 이후 기술 시장의 변화를 읽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지금의 오리온테크놀로지에 이르게 됐다”며 “선박구성품인 엔진 컨트롤 보드(control board) 사업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대기 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보안 사업을 통해서도 안전사회를 조성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일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말했다.



2003년 설립,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는 오리온테크놀리지는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많은 국가에 여러 개의 법인을 두고 있으며 제품 공급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미주 1개 법인 아래 대형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6개, Installer 15개, Sales lab 12개를 구축했으며 이외에도 EU 1개 법인 아래 20여 개의 디스트리뷰터망을 구축해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오리온테크놀리지의 핵심역량은 무엇보다 컨트롤 보드에 대한 기술력에 있다. 선박전장구성품에서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대형 저속엔진 컨트롤 보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경쟁기업 사이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안영상 제품에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체인 보쉬와 허니웰 등에 제품을 공급, 이 모두가 뛰어난 제품 기획력과 제품 개발력 그리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능력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힘든 경제 환경 속에서 이룩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오리온테크놀리지의 기업 매출은 현 조선업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계의 현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시장 위기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경우에도 건조량을 증가하고 있지만 수주량은 연이어 마이너스 성장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는 전체 세계조선시장이 침체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선박시장은 2010년 수주량에서 32.6백만 CGT를 기록, 비록 예전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정상적인 규모로 진입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2011년에 세계 총 선박수주량은 28.1백만 CGT로 다시 -17%의 절대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한국 조선업계 수주량은 13.5백만 CGT로 전년대비 21%의 성장을 일궈 침체기임에도 선전을 다했다고 이야기했다.

01. 오리온테크놀리지는 지난해 11월 29일, 특허기술이전 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에서 금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 02. 김월성 대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롭고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전 사원이  
뜰뜰 뭉치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무한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03

03. 사업 초기 도시가스 온압보정기에 대한 특허기술을 이전 받아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기술에 대한 거래활성화 사업에 대해 알게되었다. 04. 한국발명진흥회의 섬세한 도움이 안전하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다. 05. 오리온테크놀리지는 현대중공업과 두산엔진, STX엔진 등 국내 엔진 3사에 제품을 독과점으로 공급하고 있다. 06. 오리온테크놀리지의 핵심 역량은 무엇보다 컨트롤 보드에 대한 기술력에 있다.

### 기술지원으로 더 높이 날다

오리온테크놀리지는 창립 10년 만에 국내를 대표하는 단단한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에는 결코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기술력에서는 자신 있었지만 당사의 제품과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는 과정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 대표는 사업 초기 도시가스 온압보정기에 대해 특허기술을 이전 받아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특허기술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할 수 없어 고민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특허기술에 대한 거래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접했습니다. 이후 특허평가거래팀과 접촉하게 됐고요, 차준용 변리사께서 당사의 애로사항인 특허의 존재와 유효하고 유익한 특허 여부와 거래 및 이전에 따른 주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섬세한 지원이 안전하게 특허를 확보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시켜줬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도시가스 막(Diaphragm)식 계량기의 온도, 압력보정 기술 역시 독보적인 것이었던 만큼 한국발명진흥회의 도움이 매우 큰 안정감을 줬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오리온테크놀리지는 지속적인 당기순이익과 흑자의 현금 흐름을 보이며 기업 운영에 순항의 닳을 달았다. 부채비율은 50%대에 불과, 동종 기업의 평균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과 두산엔진, STX엔진 등 국내 엔진 3사에 제품을 독과점으로 공급하고 있어 오리온테크놀리지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보안영상 제품에서도 오리온테크놀리지의 위치는 안정적이다. 설립 초기부터 LCD 디스플레이 모듈사업을 시작한 만큼 자체 기술력과 제조능력을 확보하면서 보안 영상기기를 전문 사업화한 국내 유일의 회사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여진 게 아닌 듯 했다. 제품 역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메커니컬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높은 신뢰도의 제품을 만들었으며 국내 보안 산업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테크윈의 유일한 제품 공급 파트너로서 4년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대표는 회사 발전의 동력인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환경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은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고객으로 여기고 회사에 크게 기여한 사원들에게는 회사의 주식을 배부해 주인으로서의 의식과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세계시장 환경은 패러다임이 더 빨리, 더욱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 사원이 똘똘 뭉치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롭고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해, 친환경적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도약을 거듭하는 오리온테크놀리지. 앞으로의 더욱 큰 성장과 발전을 기대해본다. 발명특허



04



05



06



Trend  
Report

## 힐링(healing)의 시대, 마음의 메시지를 읽다

오래전부터 한국인의 성향을 대표하는 수식어는 ‘빨리 빨리’였다. ‘빨리 빨리’ 속에서 경제는 아주 빠르게 성장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볼 겨를 없이 달려왔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일상, 내일 또한 별반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혹독해지리라는 예감 속에서 하루를 산다. 현대인에게는 이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우리 시대의 자화상은 언제나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있다. 바로 ‘힐링(healing)’이다.

### 지친 내 마음에 '여유'라는 선물을



급격하게 변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는 이루었지만, 몸과 마음이 조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 몸과 마음은 '여유'를 통해 건강하게 가꾸어지는데, 우리 사회는 현대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언제나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다. 시간이 곧 돈이 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란 얼마나 고되던가. 하지만 세계는 연이어 장기화

된 경제침체를 겪고 있고, 우리의 삶은 그만큼 각박해져 가고 있다.

2000년대를 이끌었던 트렌드는 바로 '웰빙'이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뜻한다. 웰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현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힐링'이다. 힐링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와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심신의 안정으로 자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던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치유다.



빠르게 돌아가는 시간에 몸담으며, 우리에게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여의치 않았다. 정신적인 안정감이 주는 풍요로움보다는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했다. 정신이 강건해야만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진리조차 있었다. 과거에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과제로 남았다. 그렇기에 힐링은 이제 트렌드를 넘어서서,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결정적 한 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2030세대를 삼포세대라고 칭한다. 각박한 삶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다.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였고, 자신을 천천히 뒤돌아보게 만드는 헤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시작으로 힐링 열풍이 시작됐다. 서점가를 강타하여 책과 독자가 교감할 수 있게 한 힐링. 2012년도의 힐링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도입 단계였다면, 2013년의 힐링은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어 성장하는 발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 몸과 마음의 조화가 주는 풍요로움



힐링은 서점가를 시작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다. 방송계에서는 자극적인 이슈로 시청자의 이목을 끌던 관행을 탈피하여 따뜻한 삶의 이야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SBS <힐링캠프>를 세상 밖에 내놓았다. 그 이후로 MBC <아빠 어디 가?>, KBS <달빛 프린스> 등 따뜻한 이야기로 마음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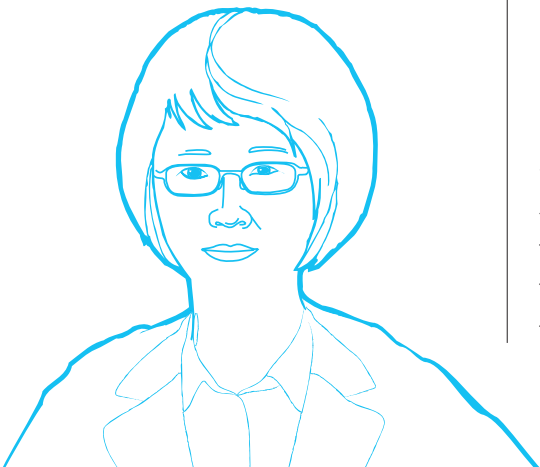
그뿐만아. 출판계나 방송계뿐만 아니라, 음악, 여행, 마케팅, 광고, 음식, 뮤지컬 등에 힐링이 더해져 더욱 다채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다. 정서적 안정을 위한 힐링 콘서트가 다양한 콘셉트로 열리고 있고, 휴식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 또한 많이 개발되었다. 그저 지나치기만 했던 자연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힐링은 각박한 사회현실의 반증이기에 씁쓸한 뒷맛을 감출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자극적인 사건이나 이야기에서 벗어나, 느낌의 미학을 추구하고 진정성 있는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루에도 수없이 보게 되는 단어인 '힐링'. 어떻게 생각하면, 힐링은 이렇게 특별한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잠깐 짬을 내어 하는 산책에도 힐링이 있고, 출근길에 듣는 음악 한 곡에도 힐링이 있다. 지친 나에게 여유를 주는 삶의 넉넉함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힐링이고, 풍요로움이 아닐까. 발명특허



이정미 제이엠그린 대표 ●



## 발명은 곧 발견

‘유레카’를 외쳤던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일화를 기억할 것이다. 욕조 속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후 기쁜 마음에 옷도 걸치지 않은 채 사방을 뛰어다녔던 아르키메데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유레카’를 외치고 있을까. 거창한 발견이 아니어도, 타성에 젖은 눈을 벗고 어린이가 같은 시선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위에 수많은 ‘유레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 평범한 주부에서 생활용품기업의 CEO가 된 여성이 있다. 그녀는 날마다 생활하는 주방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봤다고 했다.

요리의 번거로움, 칼날의 위험, 상해서 버려지는 자금낭비 등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사용가능하고, 용량조절이 쉽고 색깔별로 구분이 편한 알알이 썩썩



### 발명에 눈을 돌리다

이정미 대표는 'CEO'라는 직함을 달기 전, 평범한 전업주부에 다름없었다.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 가족들이 직장과 학교에 간 후 집안일을 하는, 다른 주부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나날을 보냈던 것이다. 그렇게 결혼 10년차 주부의 내공을 점점 발휘할 즈음, 그녀의 가정은 MF 여파를 온몸으로 맞아야 했다.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용품을 사주기도 힘든 상황이 돼 버렸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빛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이정미 대표는 가게(家計)를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처음 입사한 곳은 전자부품 회사였지만 생활은 더 나아지지 않았고 끝이 없는 빚 굴렁쇠에 꼼짝없이 걸려들고 만 것 같았다.

점점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다시 살아보자'라는 다짐이 그녀의 마음을 굳게 했다. 그러다 직장일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자신이 가장 처음에 좋아했던, '발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전 평범 그 자체의 주부였어요. 남편 사업에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한 것도 없었죠.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남들 앞에 서거나 말하는 것도 잘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창업을 한다니, 남편과 주위의 만류는 당연한 결과였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은 이정미 씨의 창업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무모한 일에 뛰어들지 말라는 핀잔을 덧붙였다.

"상황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방법을 찾고 노력해 제품을 출시하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점점 매출이 늘어나니 처음엔 부정적이었던 남편도 일손을 도와주기 시작하더군요. (웃음)"

그녀가 맨 처음 개발한 제품은 '웰빙패드'라는, 기능성 실리콘 패드였다. 더운 여름 땀으로 범벅이 되는 부위를 통풍이 되도록 개발한 제품으로 특히 여름마다 답답함을 호소한 여성들의 속옷에 이용, 많은 여성 고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남성들의 운동복이나 등산복에도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었기에 주위에서는 빨리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당시 지원금이 없어 실 제품으로 출시하지는 못했다.

"그 제품에 대해서는 추후 여건이 되면 추진하기로 하고, 지원이 되는 시제품만 계속해서 개발했어요. 결국 '실리콘 패드'는 상품화 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그게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배운 게 많았죠. 제품으로 출시할 때는 고객이 사용하기에 간편하고 가격부담이 적도록 해야 시장성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 창업 2년... 매출 4억 돌파

본격적으로 개발에 뛰어난 이정미 씨는 2011년 1월, 제이엠그린의 포문을 열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한 끝에 2012년에는 4억 매출의 신화를 이룰 수 있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대중들은 새로 만든 제품을 잘 모르니 무엇보다 홍보에 매진했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찾아 홍보를 진행하고 방송사와 신문 등 방송매체에서 섭외가 들어오면 촬영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무엇보다 제품 품질에 신경을 써서 고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러한 노력이 인정을 받았는지, 우리 기업의 물건이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한 고객들이 늘어났고 그러다보니 매출도 늘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죠."

이정미 대표의 이러한 노력은 15개의 특허와 2개의 국제출원, 디자인 등록을 이루는 성과로 나타났다. 냉동양념카터기와 자동차 환기장치, 조류퇴치장치, 차량용스노우 커버 등으로 특허를 땀으며, 양념용기 등은 국제출원을 할 수 있었다.

"특허를 처음 낼 당시는 형편이 안 좋았던 때여서 자금을 빌려 출원을 했어요. 그리고 월급을 타면 10만원씩 1년 넘게 갚았죠. 그 후에도 출원을 계속했고 월급을 타면 10만원씩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개발을 위한 준비를 계속 했어요."

현재 제이엠그린의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양념과 이유식 등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는 '알알이 썩썩'이다. 2011년 소(小) 사이즈를 출시한 후 좀 더 큰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12년 중(中)사이즈와 대(大) 사이즈까지 출시, 2013년에는 클로버미니와 특대사이즈를 제작하면서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주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더니 실생활에 유용한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현재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동남아에 수출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 FDA 인증도 받았고 중기유통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 롯데마트에 입점도 했어요. 중진공을 통해 독일 아마존에데카에도 진행 중이고 미국에도 입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격적인 수출을 위한 해외전시 준비도 병행 중이에요."

그녀는 발명이란 개개인 생활의 윤택함 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아이템보다 바로 생산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좋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발명이라고 할 수 있죠."

실생활에서 사람이 쓸 수 있는 제품이 가장 좋은 발명품이라는 이정미 대표, 앞으로 그녀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발명특허



상상,  
우물 속  
그들로부터

## 우주 너머의 향기

KT&G 논산 상상마당

“한동안 머물렀던 상상마당 늙은 목백일홍 밑에서 머문다. 상상은 우물 속 그들로부터 우주너머에 이르는 가장 크고 향기로운 길이다. 내 고향의 한우리로 상상마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일에 바칠 수 있는 정성이 있다면 쓰레기를 줍는 일이라도 기꺼이 하고 싶다. 목백일홍 뒤에 카페가 있지만 직원은 보이지 않는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잘 늙은 나무이다. 나무들은 늙어갈수록 아름다운데 탄식이 절로 나온다. 나무처럼 늙어가는 게 나의 꿈이 이룰 수 없는 꿈일 진데 그냥 애처롭다. 책에서 만난 장면들을 생각하며 그 아래 서보니 감회가 새롭다.”

논산에 낙향한 박범신 작가의 일기 중



01. 겉으로 보기만 해도 상상의 나라가 펼쳐질 것 같은 어린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형상을 하고 있는 보아뱀 갤러리 02.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는 독서 공간.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책은 입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주기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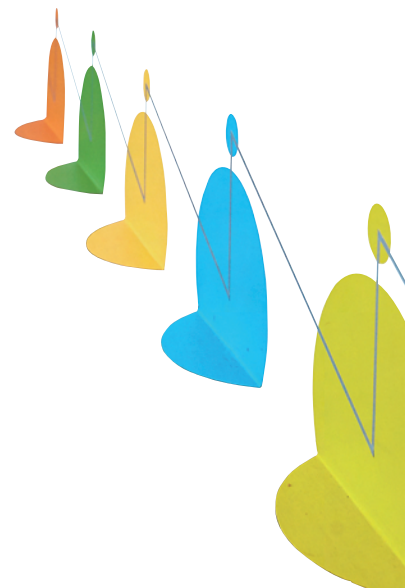
### 폐교가 아이디어촌으로

지난 2011년, 고요했던 충남 논산에 새로운 장(場)이 생겨났다. 1992년 이후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던 한천폐교가 KT&G 상상마당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다. 대지 약 4,170평 규모에 달하는 이곳에는 풀색의 보아뱀 갤러리와 나무색의 공간들이 생겨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의 웃음이 다시 이어졌다. 이전에는 한천리 지역의 어린이만이 이곳의 학생이었다면 지금은 전국 모든 청소년들이 이곳의 학생이 된 셈이었다.

상상마당이 논산 한 가운데 자리한 이유는 충남의 위치가 한 몫을 했다. 지역 어디든 가장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심부인 만큼 문화요충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장소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곳에 들어서기 전, 정문에 서서 공간을 바라보고 서 있노라면 신기하게도 과거 학교에서 뛰어놀았을 학생들의 모습이 눈앞에 오버랩된다. 지금은 사무실과 숙박실, 스튜디오 존과 암실이 들어선 건물은 과거 학생들의 책상과 결상이 놓여있던 공간이었다. 어린 학생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선생님에게 열심히 질문하던 장소들은 꿈나라에서 몽게몽게 상상을 키워가는 숙박공간이 되어 있었다. 이곳의 숙박시설은 흡사 숲속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녹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벽지는 숲속 정글의 느낌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2층으로 이뤄진 침대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야생의 하룻밤을 상상하게 한다. 마주보고 있는 2층 침대의 바닥에는 숲속 이미지와 다소 어긋나 보이는 2차선 도로가 깔려있다. 이는 내추럴한 자연미와 현대의 문화가 만나 문화 고속도로를 이룬다는 의미로, 이곳에서 잠을 자며 다음날을 맞이하는 학생들이 꿈속에서 상상력을 더욱 폭발하는 경험을 갖기 원하는 공간의 바람들을 접할 수 있다.

숙박공간뿐만이 아니다. 식당 역시 녹색의 의자와 무성한 풀이 그려진 벽지로 녹음(綠陰)을 제공한다.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衣食住) 중, 식(食)과 주(住)에서 학생들이 풍성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03



04



05



06

03. 유럽의 한 노천카페를 옮겨 놓은 듯한 상상카페 04. 상상나무 플랫폼에서 상상열매를 따라 가면 자연스럽게 코너 노선으로 이어진다. 05. 게스트 하우스는 숙박과 동시에 고정관념을 벗어난 상상 그 이상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하룻밤 머물며 아이들과 많은 꿈 이야기를 나누기 충분한 시설이다. 06. 상상마당에는 눈에 익은 아토틀이 캐릭터들이 세워져 있다.



### 뇌가 마구마구 폭발했으면

사실 이곳은 그 존재자체가 상상을 뛰어넘는 공간이다. 눈과 발만이 있을 것 같은 논산 논경지의 한 가운데에 마법같이 서 있기 때문이다. 큰 도로를 거쳐서도 정문에도 달할 수 있지만 시골길인 만큼 주위에는 굽이굽이 논두렁으로 통하는 샛길이 눈에 띈다. '이곳에 뭐가 있다는 거야'라고 생각할 무렵, 그때 상상마당은 등장한다. 마치 해리포터의 마법 지팡이로 건물을 세운 것처럼, 그렇다고 하여 이곳이 주위 경관을 무시하며 홀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강조한다는 것은 아니다. 모노톤의 건물은 주위 광경과 하나가 되겠다는 겸손한 의지를 드러내고, 초등학교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린 건물의 구조는 어른에게는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친근감을 더해준다. 마음껏 뛰어놀던 운동장이 그리웠던 어른들에게 이곳은 하나의 추억이다. 자녀들을 위해 이곳을 찾은 부모들은 공간 어딘가의 한 칸에 앉아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기도 한다.

문득, 상상력(想像力)이라는 단어가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느낀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분석해 산다는 것은, 왠지 너무 시시하지 않은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었던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 척박했기에 해리포터라는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 자명하게 존재함을 입증하는 증거다.

그래서 상상력은 중요하다. 아니 고귀하다. 말 그대로 '상상'이란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꿈꾸는 모습을, 혹은 자신이 원하던 물건과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스스로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림

으로써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는가.

뇌가 마구마구 분출했으면 좋겠다. 이곳 상상마당의 모든 그림과 도구들은 그러한 염원을 담고 있다. 스튜디오 존과 암실, 일인(一人) 연극 무대와 갤러리는 학생들의 뇌를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교과서와 학습지에 둘러 싸여있던 청소년들은 이곳에서만큼은 상상의 도발을 마음껏 할 수 있다. 도발할수록 이곳은 더욱 아름다워지니까. 눈을 높게 들고 넓게 돌리면 자연과 이곳의 어우러짐이 보인다. 나무 아래 학교가 있고, 그 학교는 상상의 공간이 됐다. 하늘 아래 땅이 있고 그 땅 위에 풀색의 운동장이 있다. 아이들의 웃음과 경계 없는 생각이 넘실대는 공간이다.

### 숲과 함께 자연을 배우다

보아뱀 한 마리가 능글맞게 누워있다. 생텍쥐페리의 동화 <어린왕자>의 보아뱀이, 거대한 코끼리를 머금고 방문객들을 응시한다. 그 코끼리는 우리 머릿속 상상이다. 얼핏모자의 모습과 비슷했던 코끼리 먹은 보아뱀은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무시무시한 소화액으로 자신보다 더 큰 코끼리를 형체 없이 분해하는 보아뱀의 소화능력처럼, 우리 역시 자신의 머리보다 큰 생각들을 무리 없이 소화하길 바란다. 생텍쥐페리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 공간은 더욱 의미가 있다. 인디밴드의 앨범부터 국내외 다양한 일러스트 그림책과 아트토이,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오토마타까지 공간을 이루는

전시물들은 우리가 살던 도시의 대형 서점과 레코드점에서 접할 수 있던 것들과 또 다르다.

'상상의 코끼리' 안에 들어있는 전시들이 너무 많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상상나무'의 도움을 빌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갤러리 안 벽체에 그려진 상상나무의 열매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콘텐츠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제품으로 만들 자신이 없다면 상상마당에 공모하면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다. 상상마당에서는 아이디어로만 머물던 것들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소정의 금액을 디자이너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밴드들의 앨범을 접할 수 있으며 8개국 언어권의 많은 책들을 편히 누워서 볼 수 있도록 독서공간이 마련돼 있어 이곳 갤러리는 아이들의 동심으로 언제나 가득하다.

공간에서 많은 체험을 즐긴 후에는 카페에서 차 한 잔으로 모든 생각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이곳에는 하늘과 나무와 땅이 존재하는 카페가 있다. 일명 상상카페. 유럽의 한 노천카페를 옮겨 놓은 듯한 이곳은 직접 원두를 볶아 향기로운 커피내음을 머금고 있다. 원목의 테이블에 앉아 정성스럽게 내려진 커피를 접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깊숙이 묻혀있던 상상력을 꺼낼 수 있게 된다. 특히 상상마당 카페 앞에 놓인 배롱나무는 하늘과 땅과 산이 어우러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모두 멈춰있는 것 같지만 실은 엄청난 공을 내며 폭발하는 상상. 이곳에서는 그 상상이 언제나 풀(full) 가동이다. 발명특허

# IP + NEWS

## 유럽 등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상표 출원 증가



##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경영 어디가 잘하나?



● 유럽·미국 등 재정위기로 불확실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12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이 총 400,815건으로 2011년 371,116건에 비해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특허 및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경제 여건의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R&D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를 선점한 결과로 보인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192,575건, 실용신안은 5.2% 증가한 12,467건, 상표는 7.1% 증가한 132,620건, 디자인은 11.7% 증가한 63,153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의 경우, 2010년에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7만 건을 넘어선 후 2011년 178,924건, 2012년 192,575건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권리 주체별 특허출원 비중은 대기업이 25.5%(49,167건), 중소기업이 15.2%(29,187건)로 총 출원 중 4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원은 23.0%(44,329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은 2011년에 17.1% 감소하였으나, 지난해에는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근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국장은 “최근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 분쟁으로 인해 특허,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R&D 투자를 확대하여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권 관리는 이제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 측면에서도 브랜드 경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별 상표(브랜드)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년 954건, 2010년 1,191건, 2011년 1,804건 등록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경영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남 보령시와 전남 함평군이다.

보령시는 올해로 17년째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머드를 활용하여 비누 및 화장품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1996년 머드팩 판매를 시작으로 2012년 현재 총 50여 종의 비누 및 화장품을 개발하였으며, ‘머드랑’이라는 비누 및 화장품 브랜드로 매년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외국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보령머드’ 브랜드를 미국, 일본 등 총 23개 국가에 국제상표 등록출원을 했다.

아울러 머드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2009년에는 머드축제 브랜드를 중국으로 수출하였고, 2010년에는 대한민국 지역브랜드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스페인 토마토축제와 업무협약 등으로 브랜드 경영을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

전남 함평군은 1999년부터 친환경 생태관광 나비축제를 14회째 개최하고 있다. 나비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형상화한 ‘나르다’라는 우산, 머리핀 등의 브랜드와 나비축제를 통해 올해는 총 230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러한 결과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특허청 관계자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로 평가받던 시대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명품 브랜드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경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중요한 생존전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성적 가치를 높여주는  
여성의 디자인출원,  
10년 전에 비해 147.7% 증가!**



●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로 진출하고 경제활동의 전반에 나서고 있으며 삶을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감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듯 최근 여성들이 감성적 가치를 높여 주는 디자인을 많이 창작하여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1년에 2,298건에 불과하던 여성의 디자인출원은 2011년 5,691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147.7%나 증가했다.

이렇게 여성들이 디자인을 활발하게 출원함에 따라 여성출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10.4%에서 2011년도에는 21.6%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써 5건 중 1건은 여성이 출원한 디자인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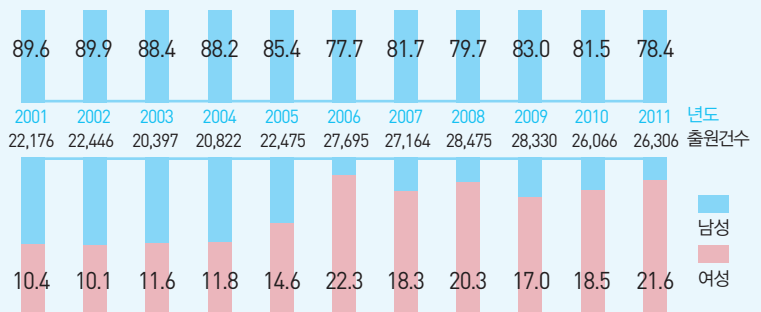
한편, 남성의 디자인출원은 2011년에 20,615건으로 2001년 19,878건에 비교해서 3.7%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디자인출원을 기준으로 여성출원자를 연령별로 보면 25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이 15.7%로 가장 많이 출원했고 그 다음으로 40대 전반(41세~45세)에서 15.2%를 차지했으며, 30대 후반(36세~40세)가 14.2%, 40대 후반(46세~50세)이 14.0%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과거와는 달리 25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이 디자인 출원을 많이 하는 이유로는 일찍부터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 권리화에 관심이 있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5세 이상에서도 젊은이 못지않게 꾸준히 디자인을 출원하고 있어 중년 이후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주로 출원하는 디자인으로는 패션이나 유행에 민감한 여성들의 관심 대상인 의류 등에 사용되는 직물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귀걸이, 반지 등 신변용품 등에 대한 디자인출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조명기구나 가구 등의 디자인에서도 여성들이 꾸준히 출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디자인등록 출원인 비율(단위:%)



## 출원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출원서식 표준사례집」 발간



## 특허수수료! 부담은 가볍게, 납부는 편리하게



● 특허청은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은 특허출원을 위해 사용하는 36개 서식을 출원서 제출과 그 이후 보완단계에 따라 110개 세부분야로 구분하고, 각 서식의 기재사항에 대한 실제 작성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서의 경우에 출원구분에 따라 처음 제출하는 '특허출원', 먼저 제출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출원하는 '분할출원', 먼저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로 변경하여 출원하는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특허출원일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소급 받으려는 '무권리자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혼동되고 틀리기 쉬운 서류를 쉽게 구분하여 작성했다.

또한, 출원인이 종종 틀리는 부분인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출원인에게만 관련 되는 '선택적 기재사항'을 별도로 표시함으로써, 서식을 작성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데 따른 까다로운 서류 작성으로 인해 틀리기 쉬운 오류를 출원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김동욱 특허청 출원과정장은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 가운데 약 20%는 대리인 없이 출원하는 직접출원 건"이라면서 "금번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에서는 서류 작성시 오류 발생빈도가 높은 기재항목에 대해서는 작성시 주의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하였으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출원하는 개인출원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원서식 표준사례집은 특허청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민원실,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참조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http://www.kipo.go.kr))에서도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특허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중견기업에 대해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특허수수료 납부수단을 확대하여 고객의 납부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창출을 장려하고,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하여 특허출원에 따른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에서는 특허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의 일환으로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제도」와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 : Automated Teller Machine)를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제도」는 현재 기업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서 모든 특허수수료를 자동 납부할 수 있는데, 고객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협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서도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확대한다.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 : Automated Teller Machine)를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제도」는 현재 특허수수료 중 연차등록료에 한하여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에서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데, 은행 방문이 쉽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고객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설정등록료까지 확대하고, 향후에도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에서 납부할 특허수수료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조직 대폭 증가



- 특허청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주관연구기관)과 (주)코리아데이타네트웍(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2년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조직의 보유 비율이 증가하고, 특허권을 해외에 출원한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조직의 보유 비율은 2011년도의 38.6%에서 2012년도 55.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국제적 특허침해소송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담당조직도 늘리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기업 중 특허권을 해외출원(PCT 포함)한 기업의 비율이 21.1%에서 22.7%로 증가하였고, 대학·공공(연)의 비율은 44.9%에서 48.3%로 증가하였다. 이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로 보여진다.

특허청은 2006년 이후 매년 이들 조사대상에 대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전 과정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피침해분야에 대하여는 2011년도부터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는 이외에도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와 진단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전기도둑 꼼짝 매!



- 전기나 수도요금을 줄이려고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허가 500여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와 수도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계량기는 사용하는 전력이나 수도물의 양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회전축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전속도는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적인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

계량기를 조작하는 전기·수도 도둑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계량기의 주위에 자석을 배치하여 회전하는 회전원판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측정되는 회전신호의 수신을 방해하여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적은 양이 기록되도록 한다. 이러한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하지만 최근 자석에 의한 계량기 조작방법이 알려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기 및 수도 계량기의 출원동향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및 수도 계량기에 관한 특허 중 자석에 의한 조작방지 기술은 지금까지 500건 수준(전체 출원의 2.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출원되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계량기 측정부위를 절연판으로 감싸서 외부의 자력에 의한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절연부에 별도의 측정부를 두어 계량기 조작을 시도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점검하는 기술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정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계량기 조작방지기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 KIPA + NEWS

## 2013년 발명특허인 신년인사회 개최

● 우리회는 특허청과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에서 '2013년 발명특허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계사년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하여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호원 특허청장,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전임 특허청장을 비롯한 발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종일관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의 개회사와 김동현 YIPL(Young IP Leader) 회장, 이철태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장, 원로 발명가인 변경삼 (주)창생 메디컬 대표, 유현오 (주)제닉 대표의 사인사색 신년다짐이 이어졌다. 잇따라 김호원 특허청장의 신년사와 전 청장, 기관장, 업계 및 학계 대표의 축하 떡 자르기를 통해 2013년의 힘찬 도약을 기원했다.

'2013 지식재산 부국코리아, 발명특허인과 함께'라는 메시지를 담은 축하 떡을 자르며 김호원 청장과 김광림 회장은 발명·특허분야 종사자들의 단합과 발전을 빌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뒤이어 윤명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오광현 전 특허청장,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김명신 지식재산 포럼 회장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건배제에는 좌중의 환호성을 이끌어냈으며, 다과회 및 상견례를 통해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광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특허기술거래 성사를 위해 앞장서고, 산업화를 지원하겠다는 통상의 약속을 지킬 뿐 아니라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31개의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심부름하는 한국발명진흥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원 청장은 "대한민국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R&D가 필요조건이라면 특허·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충분조건"이라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창조가 핵심 슬로건이며, 지식재산기반경제를 만드는데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지식재산 강국 코리아를 만들기 위하여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노력할 것이며, 특허행정의 선진 일류화에 앞장서겠다. 또한, 지식재산분야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종적으로 지식재산의 대중화를 위해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날 발명특허인들은 2013년 새해에도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전 세계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확신 아래 심기일전을 결의하였다. 진정한 IP강국으로 다시 태어날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희망에 부풀 건배를 나누었다.



### 초등학교 때부터 발명교육 정규교과 만들자



#### ● 한국발명진흥회-한국실과교육학회, 창의 발명인재 육성을 위한 MOU 체결

우리회는 초등 발명교육과 관련된 학술단체인 한국실과교육학회와 지난 1월 24일 19층 회의실에서 창의 발명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초등학교 때부터 발명교육을 정규 교과체계로 마련, 발명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 창의적 발명인재를 키우기 위한 약속의 자리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창의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발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 현장 등의 의견 수렴 및 반영 ▲교육수요 발굴·창출·활용 등 발명 교육의 확산을 위한 노력 ▲발명교육 교재·자료 등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개발 ▲발명인재 육성 이슈에 관한 정책 공동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초등 정규교과 영역에서부터 발명교육 실시가 향후 지식 기반사회의 핵심요소라는 공동인식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서로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 발명·지식재산교육 대중화를 실현하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13 한국발명진흥회 시무식 개최

● 우리회는 지난 1월 2일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시무식을 가졌다. 조은영 부회장은 “계사년 새해에는 긍정, 감사, 웃음이라는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직원 개개인의 행복에서 비롯한 훌륭한 조직문화가 지속적인 기관의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용호 인재개발연구본부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어용호 본부장은 특허청 서울사무소장, 특허청 상표3심사팀장 등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이어 전직원이 서로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아이디어, 기업의 '든든한 기술'이 되다!

- 우리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지난 1월 28일 고교 단계의 산학협력력을 지원하는 '제2기 IP (지식재산권)-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산업기술을 기업에 전달하는 기술이전식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특성화·마이스터고와 기업 및 특허전문가가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총 30개 학생팀이 참여해 모두 개발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이 중 4개팀은 협력기업에 기술이전까지 했다.

상산전자고 '이스트에그' 팀은 인공지능으로 태어나는 조류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인큐베이터가 일체화된 복합부화기' 기술을 개발해 새실산업에 이전하기로 했다. 울산 마이스터고의 '마술사', '산업혁명', 'H&H' 3개 팀은 펌프의 마모율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을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로브 펌프', '벨트를 이용한 마모 방지 로터', 'Purifying double Pump'로 개발해 JM모터스에 기술을 제공하고 장학금 지급과 채용을 약속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의 대표이사들은 "처음에는 학생들의 역량을 확신하지 못했고, 따로 시간을 내어 학생들과 회의하는 것이 귀찮기도 했지만,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열정과 학습속도에 놀랐다"면서 "학생들이 발전시킨 기술과 그 과정에서 보여준 도전정신, 열정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른들도 본받을 부분이 많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교육을 통해서 협력하면서 기업과 학교 모두 발전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싶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이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특허청·한국 발명진흥회와 협력하여 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서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젊은 창의력이 세상을 바꾼다

● '2012년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상식 열어

'2012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상자와 후원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총 47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문제 출제에 참여했으며, 전국 101개 대학 4158명의 대학(원)생이 약 7개월에 걸쳐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허전략 수립 부문에서는 '리튬 이차전지용 고용량 음극 실리콘 소재'를 다룬 부산대 김승완·한정완·박소향 팀이, 선행기술 조사부문에는 '해양 플랜트'를 다룬 충남대 신용섭 씨가 각각 최고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이 대회는 공학계열 취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해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수상자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198명의 수상자 중 61명이 취업대상자였으며 이 가운데 57명이 취업해 93.4%의 취업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학계열 대졸 취업률 67.5%보다 25.9%포인트 높은 수치다.

취업기관 비율은 대기업이 30명(52.6%)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 14명(24.6%), 공공기관 3명(5.3%)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취업자 30명 가운데 56.7%인 17명이 삼성, 현대, LG 등 국내 주요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수상자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LG전자와 삼성중공업 등 24개 기업이 수상자 취업 우대기업으로 후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검증된 인재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기업이 과제를 출제하고 대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매년 참여 기업 수도 늘고 있다.



# 제대로 알아야 보호받는다!

**Q.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할까요?**



**Q. 산업재산권이란?**

# 지식 재산권의 힘

**A.** **하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 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이 가능하다.

**둘.**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

**셋.**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넷.**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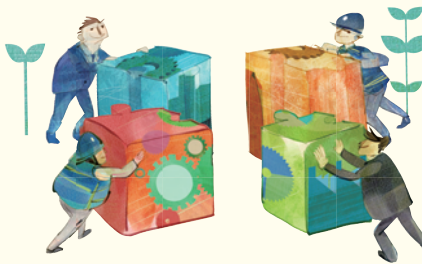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한다.

**Q. 저작권이란?**

**A.**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써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Q. 신지식재산권이란?**

**A.**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 반도체설계
- 생명공학기술

- 컴퓨터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 데이터베이스
- 영업비밀
- 뉴미디어

- 프랜차이즈
- 지리적 표시
- 캐릭터
- 인터넷도메인네임
- 새로운 상표
- 색채상표
- 입체상표
- 맛
- 소리
- 냄새상표



# KIPA QUIZ

## 2013년 01+02월호 퀴즈

- Q.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조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 Q. 고대 로마의 여신으로 본래는 풍요다산의 여신이었지만 점차 <행운>에서 <운명>의 여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라틴어의 fer(〈초래한다〉라는 뜻)와 같은 어원이며, 그리스의 티케(Tyche)와 동일시된 이 여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 : smp@kipa.org(마감일 3월 20일)

# Mouse & Mission



Mission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를 찍어 무료  
앱 게임을 내려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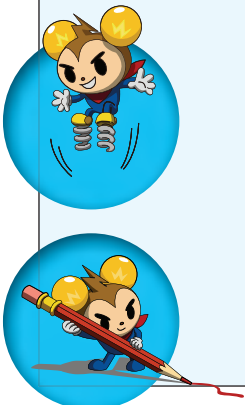
## 발명을 모티브로 한 게임 출시!



'Mouse & Mission'은 한국발명진흥회가 발명문화 확산을 위해 개발한 아이폰용 무료 앱 게임입니다. 지능을 얻은 쥐가 글라이더, 스프링, 부스터, 워프기계, 투명망토 등의 다양한 발명품을 이용해 고양이에게 잡혀간 친구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Mouse & Mission' 게임을 통해 발명을 좀 더 친숙하게 느껴보세요!

# KIPA NOTICE



더 나은 고객 서비스와 더 풍성한 정보 전달을 위해 2013년도 [발명특허]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1+2월호 [발명특허]를 읽고 느낀 점이나 편집실에 바라는 독자 의견을 smp@kipa.org로 보내주세요. 이 코너를 통해 소개해 드리는 것은 물론, 향후 [발명특허] 편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발명진흥회가 발간하는 「발명특허」는 발명진흥사업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및 정보를 다루는 전문정보지로 본회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고 투고 및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 게재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원고 모집 안내

2013년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발명특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 의견과 정책·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간되는 지식재산 전문정보지입니다.

콘텐츠 중 [IP Focus]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정보를 선도하고 정책·기술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투고를 받고자 합니다. 단, 길고 딱딱한 글이 아닌 신문의 칼럼 형식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모집 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칼럼
- 원고 주제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롭게 선택
- 원고 분량 : 원고지 22매~24매(A4용지 10Point, 3매 이내)
- 모집 시기 : 마감일 3월 15일
- 보내실 곳(E-mail) : smp@kipa.org



## ●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팀(Tel. 02-3459-2727, Fax. 02-3459-2729)

광고가격(2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3	칼라전면	700,000	부가세 별도
내지 화보		500,000	

## ●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076 아이씨티빌딩 201호	033-264-6580
전북지회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1	063-471-1284



# 제26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 ● 목적

우수 학생 발명품을 발굴·시상하고 전시하여 학생들의 발명 의식 고취 및 창의력 계발에 기여

## ● 행사 추진기관(예정)

- 주최/주관 : 특허청·조선일보사/한국발명진흥회
-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WIPO, 국립과천과학관, 경제4단체, 발명유관단체

## ● 출품신청

- 접수기간 : 2013. 3. 1(금) ~ 4. 01(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우편접수 불가
- ※ 온라인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접수기간 이후 연장 접수가 불가하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처

www.kosie.net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 전시기간 : 2013. 7. 25(목) ~ 7. 29(월) 5일간(예정)

- 개막식 : 2013. 7. 25(목) 09:00
- 시상식 : 2013. 7. 25(목) 10:30~
- ※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동시 진행

## ● 전시장소

COEX Hall A1(\*Hall A2, A3 창의력챔피언대회)

## ● 전시운영

- 전시시간 : 09:00 ~ 18:00(2013. 7. 25 ~ 7. 29)
- 발명품 전시관 운영
-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





## 제15회

#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 ● 목적

교원들의 발명품을 전시·포상하여 교사들의 발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기 진작

### ● 참가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현직 교사

※ 전국 초·중·고 현직 교육공무원으로서 재직중인 교원  
(교수 제외)

### ● 참가신청 및 심사

제26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참가신청 및 심사 절차와 동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 전시기간 : 2013. 7. 25(목) ~ 7. 29(월) 5일간(예정)

※ 제26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동시 개최

### ● 전시장소

COEX Hall A1(\*Hall A2, A3 창의력챔피언대회)

### ● 문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 전화 : 02)3459-2752

• 팩스 : 02)3459-2758

• E-Mail : sol4711@kipa.org





# 2013 지식재산캠퍼스

## 연간 교육일정 안내

IP CAMPUS

(단위 : 원)

지식재산 일반교육(노동부 환급, 특허청 지원)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회원사)
1	01.23-01.25	지식재산권 기초 1기	각 과정당 55만(48만) 노동부 환급 약 15% 환급 / 중소기업 대상 특허청 80% 지원
2	01.30-02.01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1기	
3	02.20-02.22	강한 디자인 창출 및 저작권 1기	
4	02.25-02.27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1기	
5	03.06-03.08	지식재산권 기초 2기	
6	03.13-03.15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	
7	03.20-03.22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 단 1기	
8	03.27-03.29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1기	
9	04.03-04.05	지식재산 분쟁대응 및 협상 1기	
10	04.10-04.12	미국특허마스터(출원~소송) 1기	
11	04.17-04.19	중국특허마스터(출원~소송)	
12	04.24-04.26	TLO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	
13	05.08-05.10	강한 디자인 창출 및 저작권 2기	
14	05.22-05.24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2기	
15	05.29-05.31	지식재산권 기초 3기	
16	06.03-06.05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2기	
17	06.19-06.21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2기	
18	06.26-06.28	특허경영 우수기업 IP전략	
19	08.21-08.23	지식재산권 기초 4기	
20	08.28-08.30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2기	
21	09.04-09.06	강한 디자인 창출 및 저작권 3기	
22	09.11-09.13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3기	
23	09.25-09.27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	
24	10.09-10.11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3기	
25	10.14-10.16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3기	
26	10.23-10.25	지식재산 분쟁대응 및 협상 2기	
27	10.30-11.01	미국특허마스터(출원~소송) 2기	
28	11.06-11.08	유럽특허마스터(출원~소송)	
29	11.13-11.15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30	11.20-11.22	지식재산권 기초 5기	



한국지식재산센터



제1교육장



제2교육장



교육생 휴게실



# 2013 지식재산캠퍼스

## 연간 교육일정 안내

(단위 : 원)

지식재산 특별교육(특허청 지원)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회원사)
1	02.15	연구원들을 위한 발명신고서 작성 1기	각 과정당 18만(15만) 노동부 환급 약 15%환급 /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청 80% 지원 / 비환급
2	03.12	단계별 특허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1기	
3	04.16	특허 주요심사기준(화학생명)	
4	04.23	특허 주요심사기준(전기전자)	
5	05.02	무효심판 대응전략	
6	05.14	영문 지재권 용어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1기	
7	05.28	특허침해 감정서작성 및 손해액 산정	
8	06.11	특허소송시 변론능력 SKILL UP	
9	08.27	변호사를 위한 상표소송 실무	
10	09.10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11	10.01	영문 지재권 용어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2기	
12	10.22	연구원들을 위한 발명신고서 작성 2기	
13	11.05	단계별 특허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2기	
14	11.27~28	특허소송 실무 및 최신 판례 동향 ※변리사 의무연수 인정	
15	09.06~10.11 (매주 금)	지식재산 미드필더 양성 *(단기해외연수 : 10.21~25)	220만

(단위 : 원)

지식재산 국제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
1	03.28~04.03 (5박 7일)	지식재산 실크로드_이스라엘(해외연수)	440만
2	06.26~07.05 (8박 10일)	지식재산 실크로드_유럽(해외연수)	630만

\* 지식재산 미드필더 양성 : 특허부서 예비책임자(과장급) 양성 과정

- ※ 상기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www.ipcampus.net](http://www.ipcampus.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노동부(고용보험 가입대상자) : 교육비의 약 15% 환급 / 특허청(중소기업 대상) : 교육비의 80% 환급
- ※ 환급 중복 지원 불가, 특허청 지원 대상자 회원사 할인 제외
- ※ 특허청 교육비 지원은 2013년 예산확정 이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 기업 맞춤형 방문 위탁교육



과정문의 및 연락처

[www.ipcampus.net](http://www.ipcampus.net) Tel: 02-3459-2767,2781,2762 Fax:02-3459-278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